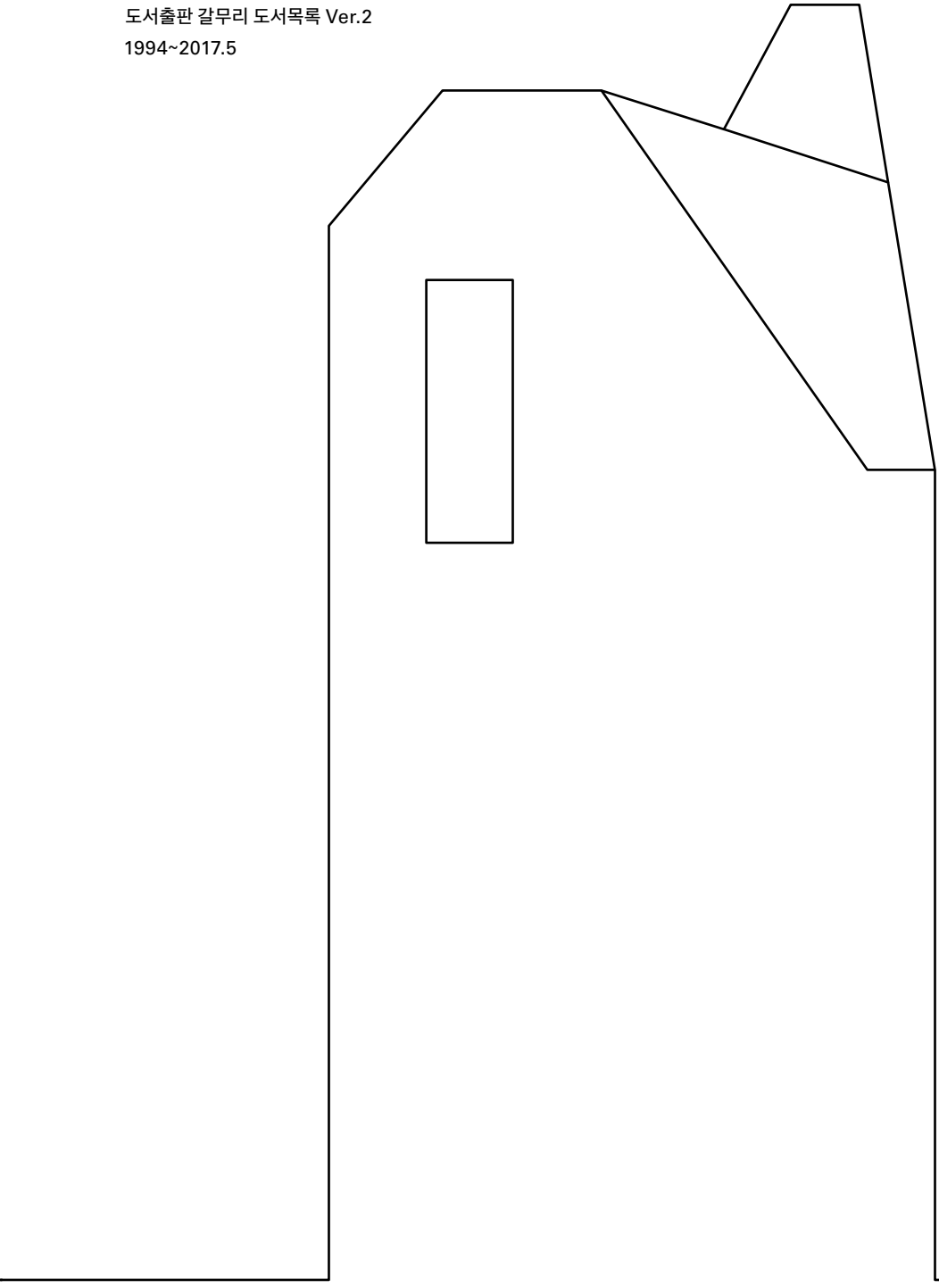
갈무리 세렌디피티
galmuri serendipity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목록 Ver.2
1994~2017.5



책은 세계의 이미지가 아니다.
책은 세계와 더불어 리좀이 된다.
책은 하나의 다양체다.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 Park, Youngchae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목록
갈무리 세렌디피티

1쇄 발행일	2015년 11월 13일
최종 업데이트	2017년 5월 9일
펴낸이	조정환
기획	신은주
편집·제작·홍보	김정연, 김하은
편집디자인	조문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전화	02 325 1485
팩스	02 325 1407
홈페이지	galmuri.co.kr
e-mail	galmuri94@gmail.com
facebook	facebook.com/daziwon
twitter	@daziwonM

도서출판 갈무리는 '삶 출판'을 지향하는 독립출판사입니다.

갈무리란 '가을에 거둔 양식을 잘 거두어 두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인류의 사유와 실천의 성과들을 잘 거두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성의 씨앗을 뿌리고, 인류의 자율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재성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자 하는 말입니다. 갈무리 출판사는 1994년 3월 3일에 창립한 후 지난 20년 동안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들을 중심으로 출판활동을 시작하였고, 거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태도로 지구화된 오늘날 다중(Multitude)의 삶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갈무리 출판사는 '삶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저항들이, 어떤 창조들이 다중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꾸준히 탐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의 진정한 힘을, 그 주체성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무리 출판사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실업자, 여성, 학생, 청소년, 아동, 노인, 동성애자 등 다양한 직업적·세대적·성별적 존재들이 살아나가는 모습과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에로 관심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성뿐만 아니라 욕망, 활력으로 관심을 넓히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윤리학으로, 공통적인 인간 덕성으로 집약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성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갈무리의 상징, 히드라

헤라클레스가 정의와 질서와 선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히드라가 무질서, 불의의 상징으로 알려진 것은 전적으로 역사적 권력자들의 필요이자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중앙집권, 위계, 질서부과를 상징합니다. 헤라클레스적 권력자의 시선에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인 히드라가 무질서로, 위기로 비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히드라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머리를 가진 헤라클레스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잘린 머리에서 부단히 새로운 머리가 생겨남으로써 헤라클레스를 당황케 합니다. 히드라는 다양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성을 상징하며 그 흐름들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창조적 힘들이 존재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히드라는 21세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주체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저항의 주체성일 뿐만 아니라 생성과 구성의 주체성이고 동시에 연합의 주체성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로 히드라를 눌러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드라는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의 장면들을 만들어 내는 민중적, 대중적, 다중적 잠재력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갈무리 세렌디피티 출간에 부쳐

갈무리는 1991년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가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선포된 때부터 준비되어 멕시코 라깡도나 정글에서 사빠띠스따 원주민들이 그 '새로운 세계질서'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류를 옹호하는 특이한 봉기를 일으킨 1994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해는 거의 10여 년에 걸친 항쟁과 혁명의 시간이 개혁과 제도화의 시간에 길을 비켜주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유혈탄압 이후 잠복했던 저항운동은, 이른바 '유화국면'을 이용하여 1984년 학생층으로부터 재기했고 1985년의 구로동맹파업을 계기로 기층 민중으로까지 확산되었고 1986년의 정치적 조직화를 거쳐 1987년 노동자-시민의 거대한 항쟁을 불러일으킨 후 1991년 5월까지 공세적 운동을 지속했지만, 1992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빠른 확산이 보여주듯이 후퇴, 방황, 청산, 변신 등 혁명의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가 문제로 제기되는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이 문제적 상황이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본격화, 확산, 심화, 보편화로 귀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자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의 경과가 단적으로 증명하듯이,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함축한 글자 그대로의 '위기' 상황은 희망보다는 죽음, 불행, 고통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기회로, 운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하고 재출발의 도약대를 찾는 진실규명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합니다. 이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는 우리 모두의 지성과 감성의 전면적 동원을 요구하고 있고, 대안은 낡고 썩은 체제에 대한 가차 없는 아래로부터의 집합적 '기소' 없이는 도래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요컨대 2014년은 아래로부터의 제헌이 당면한 문제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라는 방식으로 다중 자신의 직접적 요구로서 제기된 해입니다.

우리는 <갈무리>라는 단어를, 독일어 지양(aufheben)이 그렇듯이, 폐지, 보존, 창조의 세 가지 계기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폐지하고 무엇을 보존했으며 무엇을 창조했을까?', 첫 번째 <세렌디피티>를 내면서 나직이 자문해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20년간 독자 여러분들 앞에 제출된 200여 종의 책들이 활자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갈무리와 함께해온 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묻고 싶고 독자 여러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은 모색에서 모색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호에이스 월폴의 동화 『세렌디프의 세 왕자』의 주인공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가 찾지 않던 것을 늘 우연 속에서 발견해 왔고 끊임없이 발견의 행복을 누려왔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정해진 목적의 실현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폐지, 보존, 창조의 계기를 말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회(민주)주의로 재현되었던 20세기의 다양한 운동들은 새로운 조건을 맞아 붕괴하고 해체되고 있지만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도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할 잠재력은 영원하다.

둘째 그 잠재력은 오늘날, 더 이상 과거의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새로운 주체적 형상으로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사유, 정동, 감각의 새로운 문법, 새로운 양식을 다듬어 가고 있다.

셋째 그 실재하는 움직임을 증언하고 그 이름 부르기 힘든 내재적 경향을 토론의 광장으로 불러내어 그 옹알이를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갈무리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걸으면서 묻고 또 발견한 이 세 가지 계기들과 어떤 형태로든 조우하게 된 물질화된 사유들입니다. 그 계기들과 때로는 합치하고 때로는 긴장하며 때로는 균열하는 그 사유들의 활자 바다가 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발견의 섬, 세렌디프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물으면서 걷고 걸으면서 묻는' 길, 사빠띠스따들이 시작한 저 행복한 발견의 길, 세렌디피티의 진실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임을 조심스럽게 약속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0년 동안 갈무리와 짧게 혹은 길게 함께했던,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지, 동료활동가, 친구, 선-후배, 저자, 역자, 기고자, 프리뷰어, 후원자, 지지자, 독자 여러분들께 존재(Esse), 활력(Posse), 지성(Nosse)의 이름으로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갈무리의 친구들인(이었던) 다중문화공간 왑, 자율평론, 공간 새로운 천사, 다중네트워크센터, 호코모코노, 아우또노마 M, 다중지성의 정원 등에서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했던 여러 만사/회원 여러분들께도 사랑의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갈무리 세렌디피티>가 공부와 세미나의 커리큘럼으로, 또 우리 시대를 사유할 인식의 지도를 그려내기 위한 안내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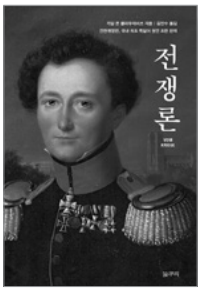
2015년 9월 29일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 조정환

© Ryoo, In Keun

갈무리 세렌디피티

도서출판 갈무리 소개 3
갈무리 세렌디피티 출간에 부쳐 4
갈무리 세렌디피티 6
고전으로부터 배운다 8
철학 입문 10
인지과학의 기초 13
인지과학의 이해 14
페미니즘 15
포스트식민주의 17
정치철학의 고전 19
정치철학의 기초 20
현대철학의 쟁점 21
현대철학의 키워드 23
현대사상의 고전가들 26
현대사상의 좌표 29
자율주의의 이해 32
현대의 주권구성 33
현대자본주의의 성격 37
현대정치학의 이슈 41
현대사회와 노동의 성격변화 46
현대사회의 계급구성 48
정보시대의 명암 50
새로운 삶의 비전 52
21세기 대안은 무엇인가? 54
생명정치 57
현대의 사회운동과 혁명 61
다중이란 무엇인가? 65
과학기술과 사회 67
메트로폴리스 톺아보기 69
문학과 사회 71
현대의 문화와 문화운동 74
예술과 사회 76
역사로부터 배운다 82
한국 현대사의 초점 85
영어를 통한 문학이해 88
상상력의 힘 89
교육과 연구 94
마이노리티 시선 95

전쟁론
전면 개정 완역판



Vom Kriege

『전쟁론』은 프로이센의 전쟁 이론가인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가 1832~1834년에 썼으며 세 권으로 출간되었다. 서양의 정치사상, 국제정치, 전쟁철학, 군사학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가 살아있을 당시에 유행한 이른바 실증적인 전쟁 이론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즉 전쟁을 물리적·기하학적인 요소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의 정신과 심리를 고려한 전쟁 이론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저서이다. 현대의 전쟁에 나타나는 공격과 방어, 전술과 전략의 형태는 200년 전과 크게 달라졌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결정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다. 옮긴이 김만수는 『전쟁론』 독일어 원전 전 세 권을 2009년에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다. 이후 10여년 만인 2016년에 해설서 『전쟁론 강의』와 함께 『전쟁론』 번역의 전면 개정 완역판을 출간하였다.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 김만수 옮김
1128쪽 | 55,000원 | 2016년 10월 출간 | 신국판 | 무선

전쟁론 강의
강의로 쉽게 읽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Lectures on Clausewitz's On War

『전쟁론』 전3권 완역본이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지 10여 년 만에 국내 『전쟁론』 연구의 권위자이자 『전쟁론』의 역자인 김만수의 해설서 『전쟁론 강의』가 출판되었다. 『전쟁론』 전면 개정 완역판과 동시에 출간되는 이 책에서 저자 김만수는 『전쟁론』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해부한다. 이 해설서는 해설, 재구성, 관련 논문, 참고 문헌의 4개의 편으로 구성된다. 1편에서 저자는 『전쟁론』의 125개 장을 150여 개의 표와 그림을 통해 보여 주고 설명하였다. 2편에서는 1편을 바탕으로 『전쟁론』의 125개 장과 8개 편을 재구성했다. 즉 125개 장의 내적인 연관성을 밝혀서 이를 40개로 재구성했다. 또한 8개의 편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혔다. 3편에는 네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전쟁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니,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읽어도 되는 부분이다. 4편의 참고 문헌은 전쟁론을 좀 더 폭넓게 공부하려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김만수 지음
628쪽 | 35,000원 | 2016년 10월 출간
신국판 | 무선

Vom Kriege

전쟁론

1·2·3권

2006년 청년의사신문1/4분기 추천도서
2008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서양사상의 고전이자 군사학의 고전으로 유명한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의 국내 최초 완역판.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전쟁론』원전을 독자들이 해설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쟁을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하며 전쟁이 인간의 '의지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정의에 따라 전쟁의 목적, 목표, 수단이 체계적으로 규정되는데 의지를 실현하는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폭력행위는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추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절대전쟁(극단적인 전쟁)과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전쟁을 개념상으로 구분하여 현실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과 우연성을 고찰하여 이로부터 현실전쟁에는 폭력성, 우연성, 정치성이라는 삼중적(三重的) 성격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 김만수 옮김
480·496·244쪽 | 24,000·25,000·15,000원
2006년 1월·2009년 10월·2009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들뢰즈 개념어 사전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87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들뢰즈 개념어 사전』은 들뢰즈가 하나의 생소한 개념을 주조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하나의 비평문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개념에 대한 특이한(singulier)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21명의 철학자들이 이 책에서 제시한 87개의 개념어(키워드)는 독자들을 깊이 있으면서도 친절하게 '들뢰즈 월드'로 안내한다. 들뢰즈가 사용하는 낯선 개념어들을 그가 사용한 시기에 따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들뢰즈 자신의 철학 전체의 맥락과 일반적인 철학사적인 맥락 속에서 비평한 이 책은 들뢰즈와 철학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저작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안내지도 삼아 들뢰즈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르노 빌라니, 로베르 싸소 책임편집 | 신지영 옮김
504쪽 | 35,000원 | 2012년 3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들뢰즈 사상의 진화

Giles Deleuze
An Apprenticeship in Philosophy

『제국』의 공저자인 마이클 하트가 쓴 들뢰즈 정치철학 입문서. 들뢰즈의 철학사상과 사회사상을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되게 분석하여, '제국' 이론과 '다중' 이론의 철학적 뼈대를 찾아간다. 들뢰즈 사상의 발전을, 그의 철학적 핵심을 지배하는 비판적 문제의식들의 발전으로 시기별로 치밀하게 추적한다. 베르그송, 니체, 스피노자라는 현대철학의 계보학에서 초기의 들뢰즈가 받은 영향들을 뿌리부터 살펴보며, 이를 후기 들뢰즈의 저작과 연결시킨다. 1부는 들뢰즈의 철학적 도제수업의 여정을 보여주고 2부는 들뢰즈·가따리의 저작들을 들뢰즈 초기 사유의 궤적과 연결지으면서 현대의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특히 2부 '들뢰즈의 사회사상' 은 정치적 함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들뢰즈와 맑스주의가 어떻게 마주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안티-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을 창조적으로 독해하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찰할 만한 지점을 던져준다.

마이클 하트 지음 | 김상운, 양창렬 옮김
480쪽 | 25,000원 | 2004년 7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네그리 사상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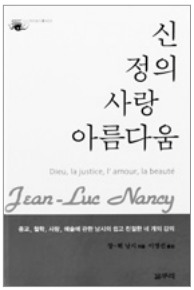
The Art of Organization

네그리의 사상적·운동적 동료인 마이클 하트가 직접 쓴 네그리 사상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이다. 부정적 형이상학의 전통 전체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상가인 네그리는 스피노자의 긍정적 형이상학을 탐구하고 헤겔의 부정적 존재론을 비판하며, 푸꼬의 존재론을 넘어 구성적 존재론을 정립한다. 이 책은 네그리가 가장 격동적으로 활동한 시기를 다루며, 오페라이스모, 아우또노미아 운동 등 1978년까지 진화해온 네그리 사상의 궤적을 총정리한다. 하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네그리는 비판적 맑스주의에서 기획적 맑스주의로, 오페라이스모(노동자주의) 운동에서 아우또노미아(자율) 운동으로, 그리고 코뮤니즘의 구성으로 사상적 진화를 거듭한다. 특히 제국론과 다중론의 사상적 기원의 형성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코뮤니즘과 집단지성, 다중지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화를 구축하려는 네그리의 열정을 만날 수 있다.

마이클 하트 지음 | 정남영, 박서현 옮김
236쪽 | 16,900원 | 2008년 10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종교, 철학, 사랑, 예술에 관한 낭시의
쉽고 친절한 네 개의 강의



Dieu, la justice, l'amour, la beauté

이 책은 프랑스 몽트뢰유 연극센터에서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들의 기록이다. 낭시는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을 주제로 종교, 철학, 사랑, 예술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다. 그가 각별한 애정을 갖는 이 책은 대상이 아이들인 만큼 쉽고 친절하며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머와 적절한 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특히 매 강연마다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은 낭시의 사상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책의 또 다른 미덕은 사유의 깊이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강좌의 기록들을 낭시가 확인하였고, 부족한 설명이나 수정할 내용들은 강의록의 시작부분이나 본문의 주석을 통해 보충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네 번의 강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낭시 사상의 최신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낭시 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라는 것도 이 책의 커다란 매력이다.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장-뤽 낭시 지음 | 이영선 옮김
252쪽 | 17,000원 | 2012년 7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앎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Der Baum der Erkenntnis

20세기 초 물리학에서처럼 오늘날 생물학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신경생물학자 움베르또 마뚜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삶과 앎의 근본과정에 관한 이들의 체계관(Systembild)을 처음으로 알기 쉽게 선보이고 있다. 이 체계관은 생물학의 세계관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적 세계관까지 뒤엎는다. 다윈주의적인 생물학에 따르면 생물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야만 하므로 객관적인 바깥세계에 얽매인다. 그러나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주장하는 체계생물학에서 '객관적' 실재란 없다. 생명체는 삶에 필요한 근본조건들만 채우면 환경에 반응하는 대신 자유롭게 자기세계를 만들어낸다. 즉 주체는 객관적 실재의 창조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이들의 연구목표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특히 신비주의자와 철학자들이 주장해 온 주체와 객체의 통일, 나눌 수 없는 존재의 전체성이 여기서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증명된다.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 최호영 옮김
312쪽 | 18,000원 | 2007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있음에서 함으로
베른하르트 푀르크젠과의 대담

From Being to Doing
The Origins of the Biology of Cognition

인지생물학의 세계적 거장인 칠레의 생물학자 움베르또 마뚜라나가 독일의 저널리스트 베른하르트 푀르크젠과 함께, 인지생물학의 전 면모를 그 기원에서부터 전개과정, 영향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 풍부한 내용에 대해 생생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담집이다. 푀르크젠은 이 대담에서 철학과 논리학의 복잡한 문제들에서부터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윤리적 물음들에 이르기까지, 마뚜라나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인상적인 파노라마를 생동감 있게 펼쳐내고 있다. 내용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띠는 이 대담집을 관통하는 핵심 관점은 '삶' 그 자체의 관점이다.

움베르또 마뚜라나(베른하르트 푀르크젠) | 서창현 옮김
352쪽 | 19,000원 | 2006년 4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인지와 자본

인지, 주체-화, 자율성, 장치의
측면에서 본 생명과 자본

『인지와 자본』은, 2011년 4월에 출간되어 지속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조정환의『인지자본주의』연속기획편 두 번째 저작이다. 오늘날 우리는 상업자본주의 시기(14~17c)와 후반 산업자본주의 시기(17~20c)를 지나, 제3기 자본주의인 인지자본주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이 시대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인지자본주의』의 출간 직후 2011년 5월, 문화공간 <숨도>에서는 실험심포지엄 <인지와 자본>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책『인지와 자본』은 그것의 연속이며 새로운 버전이다. 필자 조정환, 황수영, 이정우, 최호영은 발표 주제들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재구성하였다. 인지자본이 인지화된 노동의 직접수탈형태라면 인지자본주의는 그것의 헤게모니하에서 비인지노동까지 인지적 축적체제 속에 포섭하는 자본주의 발전형태를 말한다.『인지와 자본』은 정치경제학 비판, 철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맥락에서 인지 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탐구하며 우리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조정환, 황수영, 이정우, 최호영 지음
300쪽 | 18,000원 | 2011년 12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윤리적 노하우

윤리의 본질에 관한 인지과학적 성찰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한국에서 최초로 출간되는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단독 저작으로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행한 세 차례의 강연원고를 엮은 *Ethical Know-how : Action, Wisdom and Cognition* 영어판을 번역한 책이다.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하바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스승이자 동료인 움베르또 마뚜라나와 함께 인지과학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자기생성) 개념을 함께 창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는『체화된 마음』의 공동저자인 에반 톰슨이 쓴 두 편의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어 한국 독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프란시스코 바렐라 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역자해제는 로크, 흄 등의 경험주의 철학, 훗설과 메를로-퐁띠의 현상학, 듀이의 교육철학, 비트겐쉬타인의 언어철학, 루만의 체계이론을 아우르며 서양 철학 전통에서 구성적 인지과학의 전사와 후사를 다루어 인지과학 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 유권종, 박충식 옮김
192쪽 | 11,000원 | 2009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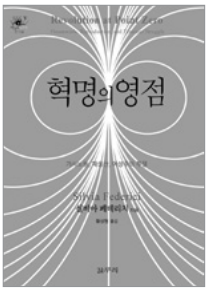
캘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중세 마녀사냥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성, 국가, 교회가 저항적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음을 밝히는 책. 마녀사냥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열쇠는 자본주의의 등장에 있다. 인클로저가 농민들로부터 공유지를 박탈한 것처럼, 여성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마녀사냥은 여성들로부터 신체를 박탈했고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던 산파 여성, 점쟁이 여성, 원주민 여성 노예 등은 죽임 당해 마땅한 마녀들로 전락하였다. 페데리치는 데카르트, 맑스, 푸코 등을 인용하면서 반란하는 신체에 대한 전투와 몸과 마음 사이의 갈등이 노동력과 소유권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조건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폭력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쇠스랑과 낫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던 16~17세기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저항을 되살려 낸다.

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 황성원, 김민철 옮김
432쪽 | 22,000원 | 2011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페데리치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을 요구했던 1970년대 여성운동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삶의 조건들을 회복하기 위한 공유재 재구축을 위한 운동까지, 급진주의 여성운동에 몸담아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여성투쟁의 본질에 대한 페데리치의 40년간의 연구와 이론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다. 재생산 활동의 국제적인 재조직과 그것이 노동의 성별분업에 미친 영향, 돌봄노동과 성노동의 세계화, 노인돌봄의 위기, 감정노동의 발달 및 공유재의 정치 같은 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페데리치는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방식과 '소외된 노동'에 내재한 모순들의 이면에는, 집단적인 재생산과 관련된, 일상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영점(Point Zero)이 있음을 강조한다.

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 황성원 옮김
336쪽 | 20,000원 | 2013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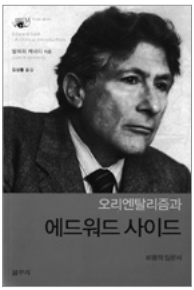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동맹에 기초한 파국경제에 맞서, 자급에 기초한 페미니즘적 대안경제를 제안한다. 1986년 초판 출간 이래로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성별 노동 분업의 사회적 기원과 식민화·가정주부화의 역사를 파헤치며, 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 속에서 여성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1998년판을 번역한 한국어판에는 변화된 상황에 관한 새롭고 냉철한 분석과,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에 관한 좀 더 자상한 설명, 그리고 비판자들에 대한 응답이 추가되었다.

마리아 미즈 지음 | 최재인 옮김
496쪽 | 29,000원 | 2014년 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오리엔탈리즘과 에드워드 사이드
비평적 입문서



Edward Said
A Critical Introduction

금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였던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적 근원과 고향을 떠나 망명의 삶을 산 고독한 비평가로 세계 지성계에 매우 중요하고 논쟁적인 인물이다. 문학 비평가, 문화 비평가, 정치 평론가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사로서의 그의 작업들은 서구 지식 생태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 이 책은 탈식민주의, 문학이론, 정치, 중동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사이드의 저작에 관한 탐구와 분석이다. 저자 케네디는 사이드가 문학, 정치, 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던 점에 주목하며 사이드 저작의 주요 가닥들을 개괄, 평가하며 각 부문들의 연결과 충돌 지점들을 짚는다. 사이드의 대표작 『오리엔탈리즘』 분석으로 푸코, 그람시, 그리고 휴머니즘의 방법론 혼용의 이론적 모순이라는 문제의식의 구체화를 속편 『문화와 제국주의』 독해를 통해 보여준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 『이슬람 다루기』 등의 저술 검토를 통해 평생을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사이드의 면모를 드러낸다.

발레리 케네디 지음 | 김상률 옮김
324쪽 | 16,000원 | 2011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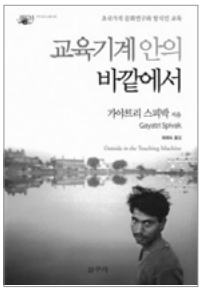
스피박의 대담
인도 캘커타에서 찍힌 소인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가야트리 스피박의 대담 모음집.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문화이론가이자 문학이론가인 스피박은 이 대담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논제들에 말걸기를 시도한다. 생생한 텍스트를 통해 재현, 자기-재현, 해체론의 정치화, 포스트식민 비평가의 상황, 교육학의 책임, 정치적 전략들 그리고 문학 및 문화 비평의 문제에 대한 스피박의 명료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 세 대륙에 걸쳐 행해진 12개의 대담식 토론을 통해 오늘의 정치 사상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론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그동안 스피박의 글과 문체를 힘들게 느낀 사람들에게 스피박 읽기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는 책이다.

가야트리 스피박 지음 | 이경순 옮김
384쪽 | 15,000원 | 2006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
초국가적 문화연구와 탈식민 교육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거장 가야트리 스피박은 제3세계적 문제의식을 집요하게 의제로 제시하면서 21세기 지식생산 구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녀의 문제의식은, 정치적으로 독립한 제3세계의 경제, 문화적 종속 상태의 인식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론구성과 지식생산의 형성에 있다. 저서 『다른 세상에서』에서 그녀는, 맑스, 푸코, 들뢰즈, 데리다, 프로이트, 구하, 차테르지,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라이 등과의 비판적 협상을 통해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자신의 이론적 포지션을 구축하며 이후 서구 메트로폴리탄 교육기계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신의 포지션 자체의 문제를 깊이 인식한다. 이 책은 이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적 미국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육실천가의 문화연구적 이론구성과 실제 문화비평의 행보의 궤적이다. 또 '전 지구화' 시대에 페미니즘적·해체론적 맑스주의의 입장에 따라 철학·문학·역사·문화를 "비판"한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저작이다.

가야트리 스피박 지음 | 태혜숙 옮김
592쪽 | 30,000원 | 2006년 8월 출간
신국판 | 양장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사라져가는 현재의 역사를 위하여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전 지구화'라는 우리 시대의 조망 안에서 페미니즘적·해체론적 맑스주의의 입장에 따라 철학·문학·역사·문화가 "비판"되는 이 책에서 그 비판의 중심축은 "토착 정보원"(Native Informant)의 형상이다. 서구 인류학자에게 식민지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류학의 원천이자 대상인 "토착 정보원"은 서구/비서구, 제1세계/제3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전 지구화 시대에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담론 속에 더욱 교묘한 형태로 살아있다는 것이 스피박의 기본적 판단이다. 따라서 그녀가 견지하는 페미니즘적·해체론적 맑스주의는 이 시대에 더욱 비가시화되는 제3세계의 서발턴(subaltern;그람시가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해 썼던 용어. 임노동중심의 주체 개념을 수정, 확장)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을 가시화하는 윤리적 책임을 위해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이 책은 '비판'과 '읽기'의 문화정치학의 제고를 위해 "초국가적 문화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2005년 문광부 추천도서 선정

가야트리 스피박 지음 | 태혜숙, 박미선 옮김
608쪽 | 30,000원 | 2005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정치론

Tractatus Politicus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스피노자 사상의 해석과 혁신으로 경합하며 자신들의 이론적 실천을 구축해 왔다. 특히 스피노자의 『정치론』의 정치/정치적인 것의 개념, 정치체제(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절대적 민주주의, 다중(multitude), 힘(potentia)과 권력(potestas)개념 등은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들과 긴밀한 사상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국과 다중, 민주주의, 삶정치(biopolitic) 또한 『정치론』에 기반한다.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추방, 배제), 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잉여인간), 자크 랑시에르의 치안/정치, 샹탈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 등 새로운 정치/정치적인 것의 지속적인 탐구는 오늘날의 혁신에 스피노자 경유가 필연적임을 뜻한다. 이 책은 스피노자가 저술한 최후의 저작이며, 특히 11장은 그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장'으로, 안또니오 네그리, 에티엔 발리바르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베네딕트 데 스피노자 지음 | 김호경 옮김
268쪽 | 16,900원 | 2008년 12월 출간
사륙판 | 양장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적 체계 이론

Niklas Luhmanns Theorie sozialer Systeme

1969년에 "제목: 사회의 이론, 수행기간: 30년, 비용: 0"이라는 놀라운 프로젝트에 착수한 니클라스 루만(1927~1998)은 하버마스와 함께 독일 지성계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평생 50권이 넘는 저서와 350편 이상의 논문을 남겼다. 차이에서 출발하는 일반 체계이론의 패러다임 전환, 의식과 뚜렷이 구별되는 사회적인 것 일반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정치·경제·학문·예술 등 사회의 주요 영역 대부분을 탐구한 우리 시대의 보기 드문 거대이론가이다. 이 책은 매우 쉽고 친절하게 루만에게 가는 길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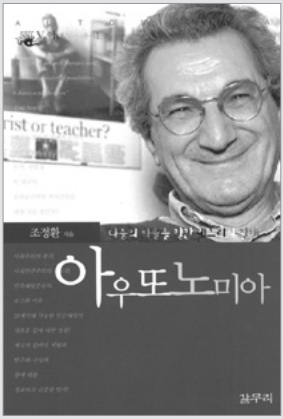
게오르그 크네어, 아민 낫세이 지음 | 정성훈 옮김
260쪽 | 13,000원 | 2008년 6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아우또노미아

다중의 자율을 향한 네그리의 항해

네그리의 삶과 사상에 대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이자
맑스주의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입문서

2003년 '한겨레가 뽑은
하반기 10권의 책'으로 선정



Autonomia

이 책은 아우또노미아(자율)로 요약될 수 있는 안또니오 네그리(1933~)의 삶과 사상을 소개한다. '제국'의 통제와 온몸으로 싸우며 21세기 인류의 대안적 삶을 고민해온 안또니오 네그리에 대한 세계 최초의 연구서이자 맑스주의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입문서이다.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그의 삶은 19, 20세기의 혁명가들이 겪어왔던 수배, 투옥, 해외 망명, 재투옥, 연금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또 네그리는 이탈리아 아우또노미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여러 자율적 운동들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그 운동의 구성과 재구성의 고비고비마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정치적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 책은 전 세계의 자율적 운동들을 1917년 혁명과 구별되는 새롭고 특이한 변혁운동의 개시로 이해하면서 이탈리아 및 국제적 신좌파 운동 속에서 이탈리아 자율운동의 고유성과 네그리의 아우또노미아 사상의 새로움을 살핀다.

조정환 지음
520쪽 | 20,000원 | 2003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푸코의 맑스
듯치오 뜨롬바도리와의 대담

Remarks on Marx
Conversations with Duccio Trombardori

『푸코의 맑스』는 푸코가 한 사람의 대담자와 행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긴 인터뷰이다. 그만큼 푸코의 작업과 삶, 그리고 시대적 풍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룬다. 푸코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지적 형성의 관련성, 자신이 살았던 프랑스의 현실과 고민의 내용,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의 해결과정에 대해 털어놓고 있으며 이로써 한 시대의 직접적인 문제들에 늘 마주서고자 했던 실천가이자 이론가인 그를 선명하게 보게 된다. 이탈리아 맑스주의 저널리스트인 듯치오 뜨롬바도리와의 이 연속대담으로 푸코는 젊은 시절의 프랑스 공산당 활동, 알뛰세 및 사르트르와의 관계, 자신이 구조주의자라는 비판, 마르쿠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 프랑크푸르트학파 연구자들과의 지적 만남, 알제리 전쟁과 1968년 5월 혁명 당시 자신의 행적, 그리고 좀더 전통적인 좌파 정치문화에서 그의 작품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 등에 대해 숨김없이 토로하고 또 거침없이 반비판한다.

미셸 푸코(듯치오 뜨롬바도리) 지음 | 이승철 옮김
248쪽 | 15,000원 | 2004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공산주의의 현실성
현실성의 존재론과 실행의 정치

The Actuality of Communism

비판 이론계의 주목받는 학자인 브루노 보스틸스는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이끄는 바디우, 랑시에르, 지젝 같은 이론가들의 새로운 사유의 흐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위한 그의 '사변적 좌익주의'라는 프리즘은, 고상한 추상개념을 넘어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대중과 계급, 그리고 국가라는 범주를 철저히, 새롭게, 사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로베르토 에스뽀지또와 알베르토 모레이라스와 더불어 논쟁하며, 볼리비아의 부통령이자 사상가인 알바로 가르씨아 리네라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긴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브루노 보스틸스 지음 | 염인수 옮김
428쪽 | 22,000원 | 2014년 9월 출간
사륙판 | 양장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

알뛰세의 구조주의 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 내부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묶은 책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위해 알뛰세의 구조주의적 철학 개념의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는 캘리니코스의 입장과 알뛰세의 구조주의 철학과 그것의 유산으로서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해 필요한 주체성 개념을 억압하는 반(反)마르크스주의 철학이라고 보는 존 리스, 피터 빈스 등의 입장이 논쟁의 두 축을 이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 이원영 편역
360쪽 | 9,800원 | 1995년 9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현대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Marxism and Philosophy

현대 철학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철학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철학개론서이다. 철학에서 정치경제학 비판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정치학으로 발전해 나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제2인터내셔널의 철학적 수정, 알뛰세·루카치·아도르노 등에 의한 철학적 발전,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담론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 등이 치밀하게 고찰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정남영 옮김
256쪽 | 7,500원 | 1995년 4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The Affect Theory Reader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한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정동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학·문화연구·지리학·심리학은 물론이고, 철학·퀴어 연구·사회학에 이르는 분과학문들에서 흥미진진하고도 새로운 통찰력을 열어주는가, 또 어떻게 정동 이론이 일상적이거나 비범한 방식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신체를 가로질러 작용하면서 미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 서로 얽힌 영역들을 조명하는지를 보여준다. 윤리·음식·공공의 사기진작·글래머·직장에서 비꼬는 말·정신건강서비스 체제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저자들은 정동에 대한 자각으로 열린 광범위한 이론적 가능성들을 드러내 보인다.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지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608쪽 | 30,000원 | 2015년 12월 출간
신국판 | 무선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가상계』의 저자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 1956~)는 캐나다 출신 정치 철학자이자 사회·미디어 이론가이며,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등 프랑스 철학 사상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해 온 학자이다. 저자는 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살핀다. 미디어는 수사학적이고 기호학적 표준 모델에 기초한 읽기 테크닉의 영역을 넘어 감각의 다양한 등록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처리과정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급진적 경험주의와 앙리 베르그송의 지각에 관한 철학을 들뢰즈, 가타리, 그리고 푸코와 같은 전후 프랑스 철학의 여과를 통해 재개하고 평가하면서, 마수미는 운동, 정동, 그리고 감각의 문제와 변형의 문화논리를 연결시킨다. 운동과 정동 그리고 감각의 개념들이 기호와 의미작용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이론적 문제설정이 출현한다. 또 그 개념들과 아울러 과학과 문화이론의 새로운 잠재적 가능성이 열린다.

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 조성훈 옮김
460쪽 | 25,000원 | 2011년 7월 출간
신국판 | 무선

가상과 사건
활동주의 철학과 사건발생적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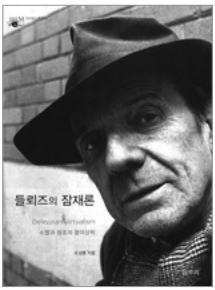
Semblance and Event
Activist Philosophy and the Occurent Arts

사건은 늘 지나간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지나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존재했던 것과 곧-존재하려고-하는-것을 포괄하는 경험을 지각하는가? 『가상과 사건』에서 브라이언 마수미는 윌리엄 제임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질 들뢰즈 등의 저작에 의존하여 '가상'이라는 개념을 이 물음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전개한다. 그는 이것이 구체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그것의 한 차원인 추상, 즉 '체험된 추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상은 체험된 추상이다. 마수미는 가상의 범주를 이용해, 관계적이고 사건-지향적인 — 인터랙티브 아트, 이페머럴 아트, 퍼포먼스 아트, 아트 인벤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 예술의 실천, 그가 집합적으로 '발생적 예술'이라 부르는 것을 탐구한다. 어떤 창조적 활동에서도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항상 밀접하게 엮이게 되는 방식을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활동주의 예술의 실천들을 탐구한다.

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 정유경 옮김
352쪽 | 20,000원 | 2016년 7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들뢰즈의 잠재론

소멸과 창조의 형이상학



Deleuzian Virtualism

베르그송주의자 질 들뢰즈의 잠재성 철학과 예술론을 파고들어 읽는다. 차이, 긍정, 창조의 근원적 환경으로서의 잠재성 개념에 관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다. 저자는 들뢰즈의 예술론을 베르그송주의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예술에 관한 논의를 철학적·윤리적·정치적 관점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존재의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역량을 해방시키는 통로로서의 예술의 힘 그리고 삶의 창조에 관한 연구이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다. 윤리적·정치적 논의는 관계 구성의 문제이므로, 때로는 총체성의 용어로, 때로는 공동체의 용어로, 혹은 다른 어떤 전체성의 개념으로 말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들뢰즈의 이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체성, 즉 차이가 훼손되지 않고도 형성될 수 있는 전체성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함으로써, 도덕을 넘어서는 긍정적 윤리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성훈 지음
428쪽 | 20,000원 | 2010년 7월 출간
크라운판 변형 | 무선

동물혼

공유지에 서식하는 기생체, 히드라, 독수리
세 가지 형상을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동학과
대안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동물우화집

Animal Spirits
A Bestiary of the Commons

10년 동안의 디지털 물신주의 시대 이후 금융 및 에너지 위기의 유령들은 새로운 미디어 문화에 영향을 준 한편 네트워크들의 자율에 의문을 갖게 하였으나 행동주의와 예술계는 아직도 크리에이티브커먼즈와 '창조도시'를 인터넷 세대의 이상으로 찬양한다. 저자는 공유지의 동물혼의 본질을 드러내어 자유문화의 이면에 작동하는 핵심적 사회 갈등과 사업 모델 들을 확인한다. 파일공유 네트워크들에 침투해 있는 기업 기생체, '창조도시들'에서 벌어진 젠트리피케이션의 히드라, 포르노적인 지하세계를 포함한 인터넷의 머리둘 달린 본성 등은 오늘날의 '공통적인 것의 정치학'의 밝혀지지 않은 세 차원이다. 예술가, 활동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보드리야르와 지젝 등의 잠재적인 청교도주의에 반대하며 개념적인 '야수들의 책'이 그려진다. 파스퀴넬리는 문화, 언어, 계몽주의, 네트워크들이 마찰과 갈등 없는 매끄러운 장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급투쟁의 현장이자 비물질 내전의 전쟁터임을 드러낸다.

맛떼오 파스퀴넬리 지음 | 서창현 옮김
444쪽 | 25,000원 | 2013년 9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

깡길렘, 시몽동, 들뢰즈와의 대화

Bergson, Thinking of Life from Becoming

이 책은 베르그손, 깡길렘, 시몽동, 들뢰즈라는 네 명의 철학자들을 생명과 생성이라는 키워드로 엮는 독창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1부는 생명철학의 측면에서 베르그손의 진화론을, 특히 신다윈주의 및 고생물학자 굴드의 이론과 비교하며 베르그손의 통찰을 짚는다. 2부와 3부는 베르그손 철학의 두 면모인 생명철학과 생성철학의 분기와 계승을 살펴본다.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은 프랑스 생기론자이며 근대생리학의 창시자인 비샤에 대한 연구로 보완되며, 비샤와 베르그손을 동시에 참조하는 깡길렘의 철학으로 이어져, 생기론적 의철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개척한다. 한편 시몽동은 크리스탈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면서, 물체의 독자성을 부정한 베르그손을 보완하여 개체화과정이 물질과 생명에서 공히 존재하는 생성의 단위임을 보여준다. 끝으로 시몽동의 개체화이론과 베르그손의 지속의 철학을 결합하는 들뢰즈는 차이 개념을 토대로 생성철학의 보다 구체적인 문법을 만든다.

황수영 지음
388쪽 | 20,000원 | 2014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 이전

Gramsci Pre-Prison Writings

세계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나간 젊은 그람시의 혁명적 사유. 이 책에 묶인 저술들은 이제까지 서구 혁명의 이론가, 상부구조의 이론가로 그람시를 이해해 왔던, 『옥중수고』를 중심으로 한 편향된 이해 방식에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이 선집은 투옥 이전의 젊은 그람시를 보여준다. 러시아 혁명과 공장 점거, 파시즘의 흥기로 이어지는 이탈리아와 세계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나간 명민한 저널리스트이자 열렬한 사회주의 정치가로서의 면모와, 평의회 운동, 도시, 국제적 프롤레타리아 운동, 파시즘 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지닌 사상가로서의 그람시의 면모가 드러난다.

안토니오 그람시 지음 | 리처드 벨라미 엮음
김현우 · 장석준 옮김
424쪽 | 20,000원 | 2001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디오니소스의 노동 I·II

국가형태 비판

Labor of Dionysus

네그리와 하트는 '시간에 의한 사물들의 형성'이자 '살아 있는 형식부여적 불'로서의 '디오니소스의 노동', 즉 '기쁨의 실천'을 불러낸다. 저자들은 국가형태의 변형을 이해하는 데 유력한 부르주아적 이론가들의 작품들과, 1947년의 이딸리아 공화국 헌법을 검토함으로써 1917년 혁명에서 출현한 프롤레타리아의 조직된 힘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권리국가를 사회적 국가로 변형시키는가를 분석하고 탈근대 사회에서 국가형태의 변형 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 이원영 옮김
304·260쪽 | 8,000·6,800원
1996년 9월·1997년 2월 출간 | 신국판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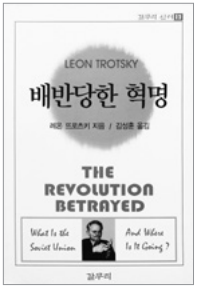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

그람시를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기획을 염두에 두었던 단일한 사상가로 보는 공통된 경향은, 그것이 '레닌주의'이건 또는 '인간주의' 내지 '헤겔주의'이건 간에, 너무도 많은 것을 희석하게 된다. 그것은 그 독창성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론구조 내의 풀릴 수 없는 긴장마저 감추고 마는 것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에게 미친 지적 영향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위기들과 대격변들, 숨가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그람시의 개입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있다.

페리 앤더슨, 칼 보그 외 지음 | 김현우, 신진욱, 허준석 옮김
400쪽 | 11,200원 | 1995년 10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배반당한 혁명

소련체제의 성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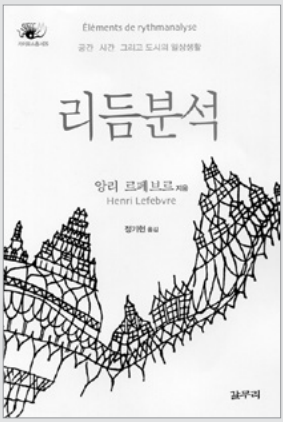
The Revolution Betrayed
What Is the Soviet Union and
Where Is It Going?

소련의 스딸린주의 체제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1930년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통계 수치와 신문기사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련 사회와 스딸린주의 정치 체제의 성격을 파헤치고 그 미래를 전망한 뜨로츠키의 대표적 정치 분석서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노동자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를 명료하게 설명한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의 해설서. 또 소련의 스딸린주의 체제를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자칭 마르크스주의자, 자칭 뜨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뜨로츠키 자신의 준열한 논쟁서이다.

레온 뜨로츠키 지음 | 김성훈 옮김
320쪽 | 17,000원 | 1995년 1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Éléments de rythmanalyse

르페브르가 리듬의 관점에서
다시 쓴 『차이와 반복』

맑스주의 사상가 앙리 르페브르의 유작. 시간, 공간, 도시, 일상성, 미학과 관련해 진행했던 리듬에 대한 그의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르페브르 사후에 친구이자 동료였던 르네 루로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왜 르페브르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맑스주의 사상가들 중 한 명인지를 보여준다. 르페브르는 맑스, 바슐라르, 니체,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등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유들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혼합하여 '리듬분석'이라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정초하려 한다. 리듬분석은 형이상학적 주제들과 미시적인 일상 모두에 관심을 기울인다. 음악, 사물, 상품, 자본주의적 시간의 조직, 신체의 조련, 미디어, 정치적 규율, 도시 등이 이 책에서 다뤄진 리듬분석의 대상이다. 시인을 닮은 리듬분석가의 역할과 잠재성에 대한 초상을 그리기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난 창을 통해 파리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거리의 군중과,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리듬분석을 직접 행하기도 한다. 르페브르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사유할 필요성을 그의 저서들 속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 역시 시간과 공간의 통합적 이해이다. 르페브르는 생체적, 심리적, 사회적 리듬분석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내재하는 시간-공간의 상호관계를 드러낸다. 르페브르와 그의 마지막 아내 카트린 레귈리에가 함께 쓴 두 편의 짧은 글 「리듬분석 프로젝트」, 「지중해 도시들에 대한 리듬분석 시도」가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상세한 해제를 썼다.

앙리 르페브르 지음 | 정기헌 옮김
276쪽 | 19,000원 | 2013년 5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

들뢰즈 맑스주의

민중이 없는 시대의 소수정치

Deleuze, Marx and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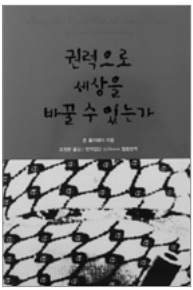
이딸리아 아우또노미아 운동의 이론적 표현물 중의 하나로서의 자율주의 정치철학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자율주의 철학의 독특성, 그리고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거두어온 발전적 성과를 집약한 책이다. 제1권은 편역자의 총론인 '오늘날의 계급 구성과 자율성 개념의 형성'을 비롯하여 제1부 '이딸리아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제2부 '포스트포드주의에 맞서' 등을 통해 대중 노동자 주체의 구성 및 재구성과 자율주의 정치철학 발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이 책은 소수정치학, 소수적 관점에서 들뢰즈, 맑스, 네그리를 독해한다. 들뢰즈의 소수정치(학)의 기법과 스타일을 탐구하여 맑스주의의 핵심적인 문제틀에 대한 소수적 독해를 진행할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서 특정의 코뮤니즘 운동들 및 조류들을 소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로 들뢰즈가 맑스를 다루는 특유한 방식을 고찰한다. 셋째로 이 책은 들뢰즈의 텍스트들 속의 잠재적 맑스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뢰즈의 텍스트들 외부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쎄르지오 볼로냐, 안또니오 네그리 외 지음 | 이원영 편역
370쪽 | 10,000원 | 1997년 10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니콜라스 쏘번 지음 | 조정환 옮김
440쪽 | 18,000원 | 2005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Change the World Without Taking Power
The Meaning of Revolution Today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 우리는 절규한다.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우리는 그 일의 시작이 말이 아니라 절규임을 잊기 쉽다. 자본주의에 의한 인간 생명의 절단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의 절규, 분노의 절규, 거부의 절규가 바로 '아니다(No)'이다. 홀러웨이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극단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공포와 이로부터 비롯하는 절규의 심화이다. 홀러웨이는 이 공포와 절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존 홀러웨이 지음 | 조정환 옮김
360쪽 | 14,000원 | 2002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아나키스트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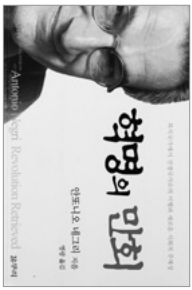
Anarchist Portraits

러시아의 유명한 지식인 미하일 바쿠닌과 표트르 크로포트킨부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화공이자 급진적인 연설가였던 플레밍까지. 이 책은 아나키스트 운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전성기를 누렸던 아나키스트 운동과 1960~7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반전운동은 서로 밀접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저자는 무덤 속의 아나키스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되살려냄으로써 사회 체제적 부조리와 전쟁에 맞선 오늘날 전 지구적 '반세계화', '전쟁반대시위'로 분출되는 저항의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다.

폴 애브리치 지음 | 하승우 옮김
480쪽 | 16,900원 | 2004년 9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혁명의 만회

복지국가에서 전쟁국가로의 이행과
새로운 사회적 주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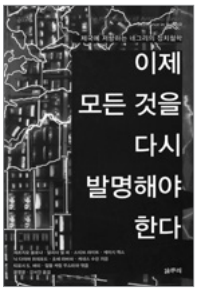
Revolution Retrieved
Selected Writings on Marx, Keynes,
Capitalist Crisis & New Social Subjects 1967-83

네그리에게 있어서 현대의 항구적 위기상태는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생산과 순환에서까지 자본주의적 노동관계에 도전하는, 소득을 위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삶-욕구(life-needs)의 해방을 위한 투쟁들의 자율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계급적대는 코뮤니즘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투쟁의 새로운 주체성들을 둘러싼 사회화의 한층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되어 왔다. 위기는 무엇보다도 임금노동 관계의 위기, 가치형태 자체의 일반적 위기이다. 이는 처음부터, 즉 1960년대 후반 이래 케인즈주의 시스템의 토대를 허물었던 투쟁들의 거대한 국제적 물결을 '대중노동자'가 구성했던 때부터 해당되는 말이다. 이 책은 계급구성의 역사적 변형을 탐구하면서 혁명적 대안을 모색하는 오뻬라이스모-아우또노미아 시기 네그리의 열정적 사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 영광 옮김
504쪽 | 18,500원 | 2005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발명해야 한다

제국에 저항하는 네그리의 정치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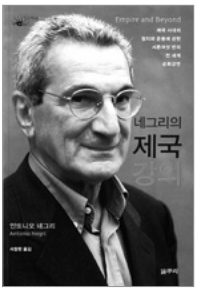
The Philosophy of Antonio Negri
Resistance in Practice

금세기 초 베스트셀러 『제국』을 출간하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안또니오 네그리는 이딸리아의 정치철학자로 슬라보예 지젝, 자크 랑시에르 등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 지성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발명해야 한다』의 엮은이들이 지적하듯 안또니오 네그리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그의 사상에 대한 충실한 독해에 기반하지 못한, 상호파괴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의 성격이 강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2008년 촛불을 통해 '다중'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었고, 현대 사회의 새로움을 포착하기 위해 네그리의 사상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의 기원과 오늘날의 적실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책을 쓴 7명의 지적 동료들의 애정 어린 비판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그간 유명 사상가로만 여겨지거나 오해와 오독의 대상이었던 네그리 사유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의 사유가 오늘날의 운동에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르지오 볼로냐, 닉 다이어-위데포드 외 지음
윤영광, 강서진 옮김
372쪽 | 19,000원 | 2010년 9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네그리의 제국 강의

제국 시대의 정치와 운동에 관한
서른여섯 번의 전 세계 순회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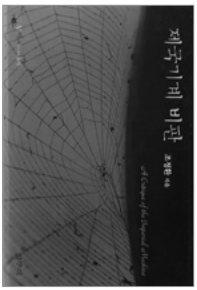


Empire and Beyond

『제국』, 『다중』의 저자 네그리가 전 세계를 횡단하며 제국, 전쟁, 다중, 예술, 포스트사회주의 전략, 삶권력과 삶정치 등에 관해 펼치는 파노라마 강연. 이 책에는 수감과 망명의 25년을 보내고 난 후 자유의 몸이 된 네그리가 2003년 5월부터 2004년까지 독일, 스위스, 프랑스, 브라질, 호주, 미국, 슬로베니아, 중국, 벨기에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36편의 강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계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 속에서 네그리가 제시하는 미래의 이미지이다. 9·11 이후 현재의 세계질서, 유럽공동체의 가능성과 직면한 문제,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움직이는 다중들의 활력, 우리 시대에 재구성되어야 할 새로운 철학의 흐름과 전통 등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준다.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 서창현 옮김
408쪽 | 19,000원 | 2010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제국기계 비판



A Critique of the Empire Machine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국』의 출간 이후 '제국'이라는 주제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그것이 미국 일방주의의 대두와 시기적으로 겹침으로써 제국을 '지구제국'이 아니라 '미제국'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힘을 얻어왔다. 제국, 다중, 자율이라는 세 개의 부로 짜인 이 책의 구성은 '제국'을 '미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가져오는 비관주의적 경향, 즉 미국의 힘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비판하면서 '제국기계'를 전 지구적 생산의 재편과 주권의 재배치라는 시각에서 좀더 균형있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제국'을 현대 세계의 다양한 힘들의 기계적이면서도 적대적인 배치로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제국에 맞서 생성되고 있는 '다중'의 힘을 자세하게 고찰하고 다중의 윤리정치학으로서의 '자율'과 '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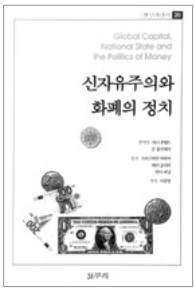
조정환 지음
536쪽 | 20,000원 | 2005년 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지구 제국

이 책은 현대 지구 사회의 성격에 대한 첨예한 논의들을 '지구 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지구 제국'은 대전 후의 국가주의적 주권형태들(제1세계의 케인즈주의, 제2세계의 사회주의, 제3세계의 권위주의 등)이 봉합하고 관리해 왔던 민족국가 차원에서의 내전을 지구적 규모에서 공공연하게 수행하는 자본의 지배장치이자 내전이 수행되는 탈중심적, 탈영토적 공간으로 설명된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제국주의론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화의 현실을 충실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현대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제국주의와는 매우 다른 사회조직 원리, 혹은 계급지배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조정환 지음
320쪽 | 12,000원 | 2002년 2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Global Capital, National State and the Politics of Money

1968년 혁명 이후 신자유주의의 상승과 화폐의 정치에 대한 영국, 미국, 이딸리아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치밀한 분석서이다. 1968년 혁명과 더불어 도래한 케인즈주의의 위기 정세 속에서 자본이 어떻게 자신의 살길을 찾아 나가는가를 검토하면서 자본의 투기적 금융 자본화와 화폐의 정치의 대두, 즉 신자유주의의 상승이 그것의 산물임을 밝힌다. 필자들은 이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지구적 경제와 민족 국가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난 20년간에 걸친 이 관계의 변형을 분석한다.

워너 본펠드, 존 홀러웨이 편저
크리스띠안 마랏찌 외 지음 | 이원영 옮김
344쪽 | 10,000원 | 1999년 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전복적 이성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 국가,
계급에 대한 비판적 성찰

State, Capital, and Class
On Negation and Subversive Reason

2008년에 폭발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해체의 국면에서 150년 전 맑스가 문제의 중심에 설정했던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적 사유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시도한 논쟁적 저작이다. 포스트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모든 정치세력들의 공통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 전환기에, 그는 자본, 국가, 계급이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부정과 전복을 통한 사회적 자율로서의 코뮤니즘을 정치(학)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언어들은 물론이고 본펠드의 모국어인 영어보다도 앞서 한국어로 먼저 출간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민주주의,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 알뛰세주의 등 맑스주의의 서구적 변형과 단호히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네그리의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인간해방과 코뮤니즘을 위한 조건들을 치밀하게 탐색한다.

워너 본펠드 지음 | 서창현 옮김
384쪽 | 20,000원 | 2011년 9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탈근대 군주론

The Postmodern Prince
Critical Theory, Left Strategy,
And The Making Of A New Political Subject

이 책의 내용은 크게 1960년대 신좌파의 등장 이후부터 2000년대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비판적 이론의 변천 분석과 비판,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집단적 실천 주체형성을 꾀한 안토니오 그람시와 모든 종류의 전략적 정치 사상을 거부하고 인간 주체를 해체시킴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을 촉발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비교 분석, 그람시의 근대 군주를 확장한 탈근대 군주론과 메타인문주의 제시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존 산본마쓰 지음 | 신기섭 옮김
432쪽 | 16,000원 | 2005년 8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동력학

Empire with Imperialism
The Globalizing Dynamics of
Neo-liberal Capitalism

이 책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시장과 다국적 기업만이 지배하는 자율적인 제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취하는 형태에 제국적 국가의 기능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국적 권력의 경제적 기초와,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국가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조지 부시를 비롯한 그들의 의기양양한 선언과는 달리 이라크의 저항은 펜타곤의 아랍 혐오자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일당들의 인종주의적 이미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아랍인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겁먹지 않으며, 저항을 조직하는 데 무능하지도 않다. 군대를 떠나는 것은 수백 명의 미국 퇴역군인들이며, 중미 출신의 용병들에게 사기가 떨어진 미군들의 자리를 대신해 달라고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이다. 여전히 제국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

제임스 페트라스 외 지음 | 황성원, 윤영광 옮김
408쪽 | 19,000원 | 2010년 3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탈정치의 정치학
비판과 전복을 넘어 주체성의 구성으로

Revolutionary Writing
Common Sense Essays in
Post-Political Politics

『전복적 이성』의 저자 워너 본펠드가 편집하고 안또니오 네그리, 존 홀러웨이, 해리 클리버 등 9명의 자율주의 저자들이 참여한 『탈정치의 정치학』에는 사회민주주의와 맑스레닌주의라는 20세기의 두 가지 거대한 실정적 기획을 넘어서 '공통적인 것'의 발명으로 나아가려는 저자들이 열망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필자들 모두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세계의 유일한 구성력으로 인정하면서 가치형태와 국가형태의 매개를 거부하는 자기해방의 기획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작업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삶과 투쟁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필자들은 출현하고 있는 전지구적 투쟁들을, '잠재적인 것'의 형태로 실재하는 '공통적인 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혁명적 코뮤니즘의 산 실험장으로 간주한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사회적 투쟁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고무하며, 그러한 투쟁들에 결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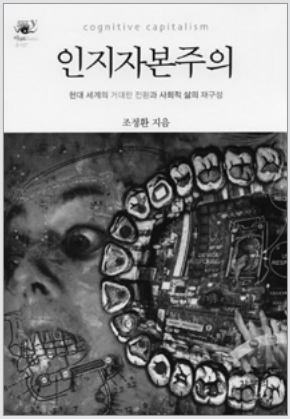
워너 본펠드 지음 | 안또니오 네그리 외 지음 | 김의연 옮김
444쪽 | 22,000원 | 2014년 3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쓰인 맑스의
『자본론』을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다시 쓴 책!

2011년 제4회 일곡 유인호학술상 수상



Cognitive Capitalism

인지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를 잇는 제3기 자본주의이다. 이 책은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쓰인 맑스의『자본론』을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다시 쓴 책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지 않는 세계 경제 상황은 일상적인 개인의 삶에, 사회에, 그리고 이론에 비관주의, 허무, 우울,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핵위기에서 확인되듯이 자본주의로 인해 파괴된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에 대안은 있는 걸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듯이 이 위기는 자본주의의 의례적인 순환일 뿐이고, 자본주의는 또 다시 위기를 넘어 상승할까? 이 책은 이러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에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조정환 지음
576쪽 | 25,000원 | 2011년 4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The Violence of Financial Capitalism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지구적 경제위기를 포스트포드주의와 생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맥락에서 다룬다. 위기를 기화로 자신과 노동을 가치절하하면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전체 생명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인간의 삶까지 자본의 폭력 아래에 저당 잡는다. '부채인간'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보편적 형태로 되었다. 우리는 워킹푸어 아니면 하우스푸어이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한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부채를 통한 성장 대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적 투자로서 공통적인 것을 회복하여 인간의 행복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초석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형태를 보다 잘 이해하길 바라고 있다.

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 심성보 옮김
252쪽 | 17,000원 | 2013년 4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자본과 언어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Capital and Language
From the New Economy to the War Economy

노동세계에서의 변화들과 금융시장에서의 변동들이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책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 단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와 가장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적하기 위한 중대한 포스트맑스주의적 지침을 제공한다. 금융시장의 극단적인 휘발성이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와 보다 투기적인 화폐-금융 경제 사이의 불일치에 기인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포스트포드주의적인 신경제에서 이러한 구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두 영역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미국 정부가 2001년 경제불황 이후 그 불황에 맞서기 위해 사용해 오고 있는 주요한 수단인 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상주의, 산업주의, 신경제의 포스트포드주의적인 절정에 뒤이어 자본주의의 네 번째 단계인 "전쟁 경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한다.

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 서창현 옮김
252쪽 | 17,000원 | 2013년 6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The Changing Working Class

1990년대에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성격과 그 내적 동력을 해부한 경제 분석서. 맑스가 『자본론』에서 규명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현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면서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나 시장주도의 경제정책 양자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크리스 하먼 지음 | 이원영 옮김
304쪽 | 8,000원 | 1994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현대자본주의와 민족문제

자본 국제화의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집. 자본 국제화의 과정이 민족국가를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나이젤 해리스의 견해와 자본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지속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캘리니코스와 하먼의 견해 사이의 대립이 발전적으로 전개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 배일룡 편역
232쪽 | 6,000원 | 1994년 10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자본과 정동

언어 경제의 정치학

Capital and Affects

The Politics of the Language Economy

마라찌의 이후 작업의 정초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불안한 경제시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타당한 분석을 갖추고 있는, 포스트포드주의 문헌에서 기초가 되는 저작이다. 오늘날 소통은 노동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언어 기계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재다능하며 적응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노동형태 모델의 전개를 추적하는 마라찌의 비판은 정치경제학을 뛰어넘어 사회생활, 정치참여, 민주제도, 개인들 간의 관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 등과 관련된 논점들을 망라한다.

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 서창현 옮김
236쪽 | 17,000원 | 2014년 5월 출간
사륙판 | 양장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Winds from Fukushima

2011년에 전 세계에는 두 방향의 바람이 불었다. 2011년 1월 중동에서 시작된 혁명의 바람은 유럽을 거쳐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의 주코티 공원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방향의 바람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북동부에 위치한 후쿠시마에서 불기 시작한 방사능 바람이다. 이 방사능 바람은 원자력의 "안전한 산업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과 구별되지 않을 뿐더러 위험은 더 산재(散在)해 있고, 더 상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원전 신화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의 종결" 선언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 원전 수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자극하고 선도하는 것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서둘러 추진하고, 후쿠시마 이후 원전건설 후보지(삼척)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한국이다. 후쿠시마에서 불어온 바람은 이렇듯 복잡한 힘들이 얽혀드는 현장이다. 이 책은, 지구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바람의 복잡성과 혼란을 사유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조정환 편역 | 조정환, 박노해 외 지음
304쪽 | 18,000원 | 2012년 3월 출간
사륙판 | 양장

9.11의 희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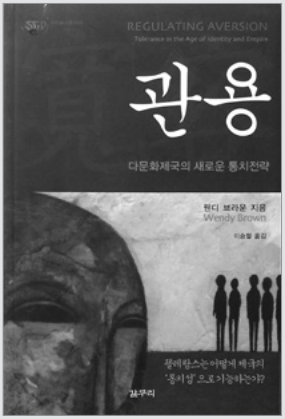
테러와의 전쟁에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

Scapegoats of September 11th
Hate Crimes and State Crimes in the War on Terror

9·11 이후, 미국은 9·11의 비극이 만들어 낸 공포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는 미국의 거대 도시에서부터 중심부의 깊숙한 곳까지, 수많은 항공기들이 날아다니던 항공로부터 시골의 구불구불한 샛길까지 퍼져 있었다. 공항 검색과 우편물 검열이 강화되었고, 미국 행정부는 재빠르게 시민권을 제한했다. 공포 때문에 경계심이 높아진 대중은 이러한 조치들을 받아들였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웰치는 "테러와의 전쟁"이 "매우 정치적인 제스처 게임"이며 이 게임이 거짓 위안을 주고 공포심을 경감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미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과 무관한 사람들이 9·11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9·11의 희생양이다. 웰치는 미국 안팎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증오범죄와 국가범죄를 다양하고 풍부한 설명으로 명쾌하게 제시한다.

마이클 웰치 지음 | 박진우 옮김
392쪽 | 19,000원 | 2011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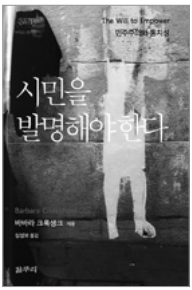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언제부터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원인을, 불평등과 부정의가 아닌 "불관용"에서 찾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화나 평등이 아닌 개인과 권력의 관용을 호소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일까? 웬디 브라운의 『관용 :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이론가 중 한 명인 저자는, 우리 시대의 윤리적 이상이자 선으로 칭송받는 관용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고, 최근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 관용 담론이 생산하는 탈정치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파헤친다.

웬디 브라운 지음 | 이승철 옮김
344쪽 | 19,000원 | 2010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통치성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을 어떻게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을 나침반으로, 예컨데 복지와 시민성의 관계, 민주주의와 독재의 관계, 주체성과 예속성의 관계들에 관해서 묻는다. 크룩생크는 민주적인 개인은 스스로 통치하는 시민으로 창출되며 그러한 시민의 발명은 자발적 결사, 개혁 운동, 사회복지 프로그램 같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늘날 "시민성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 시민권 투쟁, 자선활동의 자조계획, 자부심 각성 운동 등을 자세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사회적 동원이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개혁 운동의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그것의 테크닉은 통치적 권위를 넘어서 확장된다. 사회 정책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이론과 결합함으로써,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는 민주적인 시민과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재창출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바바라 크룩생크 지음 | 심성보 옮김
368쪽 | 20,000원 | 2014년 4월 출간
사륙판 | 양장

빚의 마법
화폐지배의 종말과 유대로서의 빚

The Bonds of Debt
Borrowing Against the Common Good

이 책은 부채를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다루면서, 모두가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세계가 지닌 다양한 함의를 분석한다. 저자는 미디어 정치, 통계, 보노의 국제원조 활동, 프라다 상점의 건축, 오바마의 국가안보전략, 맑스가 들려준 동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횡단하면서 현 채무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러한 채무 체제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유대로 재구상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채무 체제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회적 유대로서의 빚을 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리차드 디인스트 지음 | 권범철 옮김
324쪽 | 20,000원 | 2015년 7월 출간
사륙판 |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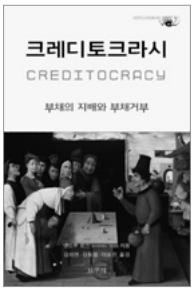
대테러전쟁 주식회사
공포정치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

War on Terror Inc.
Corporate Profiteering
from the Politics of Fear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려한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비대해질 국가정보원의 권력이었다. 테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도입된 <테러방지법>의 실제 목적은 무엇일까? 휴즈는 정부의 가장 더러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계약업체들의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진실할 것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공적인 삶의 영역들이 상업적인 손에 양도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전반부는 대테러전쟁의 발단 단계로서 주로 민간 업체들이 국가의 군사 및 안보 영역을 사영화하여 결과적으로 무력을 앞세운 대테러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분석한다. 후반부는 대테러전쟁의 확장과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다룬다. 안보산업복합체의 적나라한 출현을 보면서, 테러 방지, 국민 보호, 공공 안전 수호, 안보 자주권과 같은 문구들 이면에 어떤 이해관계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감할 수 있다.

솔로몬 휴즈 지음 | 김정연, 이도훈 옮김
376쪽 | 20,000원 | 2016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크레디토크라시
부채의 지배와 부채거부



Creditocracy
And the case for Debt Refusal

주택 소유자, 학생, 의료보험 없이 병을 앓는 사람, 신용카드 소지자 모두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며 흡사 빚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 사이에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몸집을 키우거나 유례없는 고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은행 통제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앤드루 로스는 이 인상적이고도 괄목할 만한 조사연구에서 우리가 끔찍한 크레디토크라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고 주장한다. 부채의 지배 하에서 금융산업은 선출된 정부를 탈취하고, 시민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빚을 얻어 쓰도록 내몰린다. 로스는 위기를 불러오는 갖가지 대부 행태를 검토한 후 우리에게 지워진 부당한 부채의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크레디토크라시』가 채권자 계급만을 살찌우는 약탈적 부채-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경제의 윤곽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앤드루 로스 지음 | 김의연, 김동원, 이유진 옮김
348쪽 | 20,000원 | 2016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로지스틱스
전지구적 물류의 치명적 폭력과 죽음의 삶

The Deadly Life of Logistics
Mapping Violence in Global Trade

로지스틱스(logistics)는 비즈니스의 물류와 전쟁의 병참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지스틱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로지스틱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서도 상품을 이동시키는 순수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 책은 두 분야, 즉 전쟁과 비즈니스 중 무엇을 다룬 책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책은 유통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며 전쟁술에 대한 책도 아니다. 저자는 로지스틱스가 순수 기술적인 방편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주장하며 로지스틱스를 현대 세계의 중심적인 문제로 다룬다. 이 책은 유통 기술이나 전쟁술의 향상에 대해서가 아닌 로지스틱스를 통해 형성되는 전지구적인 사회적 공장의 폭력을 폭로한다. 저자는 전쟁의 로지스틱스에서 출발하여 '혁명'을 겪은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로 이동하며 전쟁술과 비즈니스술이 뒤섞인 오늘날의 로지스틱스가 수행하는 사회적 전쟁 — 이것은 단순히 비유인 것만은 아니다 — 과 그 대안으로 나아간다.

데보라 코웬 지음 | 권범철 옮김
400쪽 | 22,000원 | 2017년 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신정-정치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Theo-cracy

문학평론가 윤인로의 두 번째 단독 저서. "자본정치는 신정이다"라는 일관된 관점에 따라 박정희, 박근혜, 세월호, 촛불, 김진숙, 노동해방문학, 월스트리트점거, 바틀비, 조정환, 이승우, 보르헤스 등 다양한 현상과 인물, 텍스트에 대한 분석 속에서 이 관점을 변주하며 표현한다. 화폐의 힘을 '현실적인 신'이라고 표현한 맑스, 자본주의를 기독교의 형질을 띤 것으로 포착한 벤야민, 현대 국가의 주요 개념들이 환속화된 신학의 개념이라고 했던 슈미트, 국법의 진정한 실험실이 교회법이었다고 한 아감벤. 이 책은 그런 성찰들을 따르면서, 신, 신성, 신적인 힘이 경제적 이윤과 정치적 권력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비평한다. '신정-정치'라는 이 책의 제목은 신적인 힘에 의해 인도, 매개, 합성, 재편되는 정치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이픈에 의해 그런 신정정치의 매개상태가 절단되고 정지되는 상황의 발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인로 지음
652쪽 | 30,000원 | 2017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율로

Soul at Work
From Alienation to Autonomy

자본은, 영혼이 의미하는 모든 것, 즉 언어, 창의성, 정동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노동력을 확립함으로써 신체/영혼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애써 왔다.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사이버문화의 영역에서 착취는 산업노동 시대와는 달리 마음, 언어, 감정을 연루시켜 가치를 창출한다. 이 책은 이 새로운 형태의 소외[소원]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소외의 조건은 새롭다. 노동자들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속박되어 있으며 부채가 탈근대적 노예 형태가 되어버렸다. 끝나지 않는 생산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항우울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체화의 새로운 형태들도 출현하고 있다. 그 새로운 반역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 예술가들, 엔지니어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코그니타리아트로 부를 수 있다. 이 인지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실업 상태에 놓인, 과도 생산에 의해 착취당하는 창의적인 계급이다.

프랑코 베라르디[비포] 지음 | 서창현 옮김
316쪽 | 20,000원 | 2012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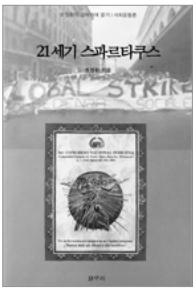
비물질노동과 다중

Immaterial Labor & Multitude

물질적 생산물의 생산에서 사회적 주체성의 생산으로 변화한 우리 시대의 노동과 그것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한 심원한 분석. 『제국』 출간 이후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민중에서 다중으로'의 이행은 명백하게 선언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 실상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삶정치, 보장소득, 전지구적 시민권 등 정치적, 실천적 주제에 대한 상세한 규명이 필요한데, 현대의 생산조건인 노동과정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깊이 있게 해명될 수 없다. 물질노동(산업노동)은 삶과 대립하면서 발전되었지만 비물질노동(탈근대의 노동)은 물질노동이 노동 밖으로 배제함으로써 이용했던 삶의 미시적 활동들을 노동 속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 책은 비물질노동의 두 축인 정동노동(1부)과 지성노동(2부)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비물질노동이 미치는 영향관계를 탐사한다(3부).

안또니오 네그리 외 지음 | 자율평론 번역모임 외 옮김
400쪽 | 21,000원 | 2005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21세기 스파르타쿠스



지구제국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투쟁 노선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현시기에 유효한 저항의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전작 『지구 제국』 2부에서 저자 조정환은 '정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이행'을 다루면서 주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생각의 일단을 피력했지만 이번 책에서 관심의 초점은 20세기에 주도적 저항 노선으로 채택되었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좌파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1968년 이후 대두된 새로운 사회적 주체성과 새로운 운동 노선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에 모아진다. 21세기 스파르타쿠스라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대중 파업과 당의 결합에 기초한 20세기적 스파르타쿠스의 형상이 낡은 것으로 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조정환 지음
312쪽 | 12,000원 | 2002년 5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자립기

1960년대 이후 자립생활기의 형성과
가족 및 사회의 극적 변화

The Age of Independence
Interracial Unions, Same-Sex Unions,
and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1960년대까지 주목되지도 확산되지도 않았던 자립생활기(자립기)의 형성과 그것의 사회역사적 의미 및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마이클 로젠펠드는 '자립적 생활단계', 혹은 '자립기'(independent lifestage)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현대의 결혼과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자립기는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 대학도 가고 여행도 떠나며 직업을 찾는 성인 초기의 시기를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도 하고, 이성과의 결혼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형성하며 살아간다. 자립기의 등장으로 부모는 자녀의 연애와 배우자 선택에 개입하기 힘들어졌으며, 그 결과 이인종 결합과 동성 결합, 동거등 관습을 거스르는 대안 결합 형태들이 확대되고 있다. 자립기의 구축은 현대 가족구조 및 사회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이 책은 미국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질문에 상세히 답하고 있다.

마이클 J. 로젠펠드 지음 | 이계순 옮김
352쪽 | 20,000원 | 2014년 1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정보시대의 노동전략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발전 전략은 사회적 노동자의 출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 극복 처방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 슘페터의 이론과 전략을 확대 재해석하여 제시한 일단의 학자들이 있다. 저자는 이들의 자본주의 발전전략을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본의 전략을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노동전략을 추출해 낸다.

이상락 지음
352쪽 | 10,000원 | 1999년 1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실업사회

백수, 백조=청년실업자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 삼팔선=38세 정년, 사오정=45세 정년. 이 책은 한국을 배회하고 있는 실업이라는 유령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서이면서도 만화, 게시판 글, 시, 도표 등을 섞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 문체로 쓰인 실업세대를 위한 안내서이다.

김만수 지음
288쪽 | 13,000원 | 2004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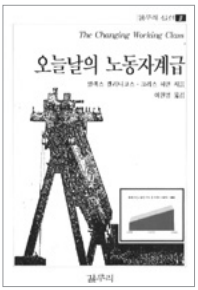
싸이버타리아트

The Making of a Cybertariat
Virtual Work in a Real World

전 세계 노동력의 감소와 탈시장의 도래를 예견한 리프킨의 주장은 상품생산에 참여하는 이들만을 '진짜 노동자'로 보는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이 책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여성들에게 새로운 저임금의 일자리를 가져다준다는 사실, 정보화를 통한 가사노동의 상품화가 바로 그 여성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무보수 소비노동을 부담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어슐러 휴즈 지음 | 신기섭 옮김
296쪽 | 12,000원 | 2004년 4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품절)



The Changing Working Class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 노동자계급 구성상의 현상적 변화들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질적 전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계급 분석이 갖는 개량주의적 허구성이 여러 각도에서 폭로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크리스 하먼 지음 | 이원영 옮김
216쪽 | 5,500원 | 1994년 8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우애의 미디올로지

잉여력과 로우테크(low-tech)로
구상하는 미디어 운동

Friendship's Mediology

문학평론가, 인문학강좌 기획자인 임태훈이 미디어의 역사, 소리의 문화사를 탐구하여 낸 첫 저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폭압적인 시장 논리로부터 미디어 환경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기획이자, '촛불'과 '3·11'의 역사적 잠재성을 밝혀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상력을 구상하고, 불온하고 미천한 존재들의 특이성에 감응해 거대 미디어 기업의 첨단 기술에 맞설 '신체의 기술'을 개발한다. '우애의 미디올로지'는 자본주의적 일상의 자기중독증을 치유하는 온갖 삶의 실험을 지지하는 슬로건이자 3·11 이후 방사능의 대기를 상징하는 별칭이다. 이 책은 정보자본주의의 도구가 아닌 해방의 장소를 지향하는 웹 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미디어 격변기의 한가운데서 구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잇는 창조적 조정자로 '문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모색한다. 신자유주의 미디어 격변기의 비인간적 전횡에 반대하는 비전과 실천을 구상하는 이들을 위한 책.

임태훈 지음
308쪽 | 18,000원 | 2012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국가에서 마을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에 대하여

From the State to the Village

IT 업체에서 12년 넘게 근무해온 서비스기획 전문가인 전명산은 인류학,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이론, 정보사회론, 웹2.0 등 다양한 영역의 이론과 더불어 원시공동체가 사는 모습, 3.1운동과 촛불집회의 비교분석, 개똥녀 사건, 네티즌 수사대, 지하철 게릴라 시위 등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섭'하며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현대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의한 "마을"이 되었고, 따라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적 협업 구축을 제안한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동체 전체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체 개개인들이 공동체 전체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2013년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전명산 지음
248쪽 | 15,000원 | 2012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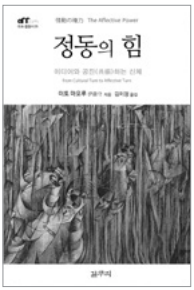
제국의 게임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비디오게임

Games of Empire
Global Capitalism and Video Games

비디오게임은 전지구적 미디어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고 매출 규모나 영향력이 할리우드에 필적하는 산업이다. 또한 더 이상 10대 남성들의 하위문화가 아닌 전 세계의 성인들이 비디오게임을 즐긴다. 한편 그것은 기업의 착취와 군대모병의 주요 현장으로 기능한다. 이 책은 <세컨드 라이프>, <WOW>, <GTA> 같은 비디오게임과 가상 환경 들에 대해 급진적인 정치 비평을 제공한다. 또 이 게임들을 마이클 하트와 안또니오 네그리가 이론화한 21세기 초자본주의 복합체인 '제국'의 전형적 매개체로 분석하면서 가상게임 행위가 부상한 과정을 추적하고, 제작자들과 이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게임과 실제 간, 육체와 아바타 간, 스크린과 거리 간의 관계를 묘사한다. 도덕적인 공포증과 경박스런 열광 모두를 거부하며 이 책『제국의 게임』은 어떻게 비디오게임이 전 지구적 자본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 힘들을 구체화시키며,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의 수단도 제공하는지를 보여 준다.

닉 다이어 위데포드, 그릭 드 퓨터 지음 | 남청수 옮김
512쪽 | 25,000원 | 2015년 5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共振)하는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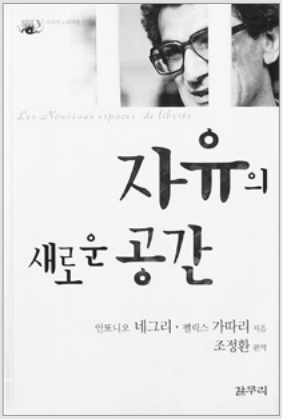


情動の権力
メディアと共振する身体

포스트포디즘적 산업구조와 글로벌화는 정보서비스 산업을 확대했고,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감정 등을 자본으로 축적하며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자층을 양산했다. 다양한 지식, 정보산업 등의 업종이 교차, 혼재하는 곳에서 일하는 지적노동자는 여가, 노동과 취미, 공과 사의 경계가 애매한 시공간에서 일한다. 한편 의료, 복지, 서비스 산업 등에서 감정 노동에 종사함에도 임노동의 영역에서 소외된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 특이한 미조직 노동주체들은 기존 제도 회로로는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주장을 공적 공간에 발신할 수 없다. 또 이 새로운 집합적인 주체는 기존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틀로는 포섭되지 않는, 제도적 틀을 넘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주체이며 네그리와 하트가 다중이라고 부른 특이한 사회적 존재이다. 지금 이들이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조건 속에서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정동, 감정, 의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토 마모루 지음 | 김미정 옮김
320쪽 | 20,000원 | 2016년 1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자유의 새로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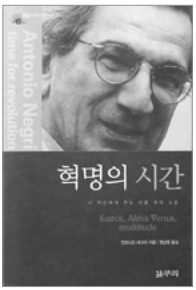
Les Nouveaux espaces de liberté

1995년에 한국어로 첫 출판되어 사람들로부터 '다시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세평을 얻었던 『자유의 새로운 공간』은 1968년에 시작된 혁명의 의미를 새로운 주체성들의 탄생에서 찾으면서 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에게 조응하는 새로운 혁명적 정치학을 재구성하고 있다. 저자인 안또니오 네그리와 펠릭스 가따리는 레닌주의적 당 개념, 그리고 그것의 중앙집권주의를 극단화시켜 출현한 초중앙주의적 테러리즘을 기각하면서 이를 자본주의적 노동강제의 계획화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기각과 결부시킨다. 이들은 사회주의와 레닌주의적 당 개념을 버리지만 계급적 적대관계를 떠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매우 강력한 정치적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들은 계급구성의 현 단계, 즉 생산 및 재생산 전 과정의 자본주의에의 포섭과 노동의 정보화, 컴퓨터화 등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혁명정치의 중심요소로 끌어안으면서도 적대적 긴장감 없이 개별성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치로 주저앉지 않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충분히 승인하면서도 그것을 내재적 코뮤니즘의 활성화라는 전략 속에 위치지운다.

안또니오 네그리, 펠릭스 가따리 지음 | 조정환 편역
304쪽 | 13,000원 | 2007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혁명의 시간

나 자신에게 주는 아홉 개의 교훈



Time for Revolution

이 책은 들뢰즈의 『시간의 구성』과 함께 1980년대부터 진행된 시간과 저항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성찰들을 담은 철학적 에세이이다. 특히, 『제국』이 나온 직후에 감옥에서 쓰인 이 책은 제국과 다중이라는 두 핵심 개념들을 제공하며 유물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 그것은 '주권'의 옹호자, '선험론'의 옹호자, '일반의지'의 옹호자들인 홉스, 루소, 헤겔과는 다른 '유물론의 재구성'이다. 맑스를 근간으로 마끼아벨리, 스피노자, 푸꼬, 들뢰즈-가따리의 사유를 따라 유물론의 전제들을 혁신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자본으로 완전히 포섭된 제국의 시대에 다중의 저항과 혁신을 위한 장소가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탈근대 우리들의 화급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은 삶 전체가 자본주의적 생산활동이되면서 스스로를 드러낸 '다양하고 이질적인 삶들이 생산하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유물론을 재구성하는 '다중의 유물론적 정치철학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 정남영 옮김
288쪽 | 13,900원 | 2004년 6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선언 전 세계의 빚진 사람들, 미디어된 사람들, 보안된 사람들, 대의된 사람들이여,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라!

Declaration

2011년 전지구적 연쇄봉기의 상황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봉기의 조건, 특성, 경향, 요구, 조직, 이념, 실행 등에 관해 면밀하게 살피면서 편지, 기고,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건들에 이론적으로 개입했다. 2012년 5월에 팜플렛 형태로 발표된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개입의 가장 최근의 형태이면서 가장 본격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2011년의 봉기들의 정치철학적 의미, 그 반란들의 세계사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저자들에 의하면, 빚진 사람들, 미디어된 사람들, 보안된 사람들, 대의된 사람들이라는 네 가지 형상이 오늘날의 위기를 불러오고 구성한 주체성이다. 봉기와 반란의 운동들은 이 주체적 형상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억압적 체제들을 거부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주체성들을 권력의 형상으로 바꿀 수단을 제공한다.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 조정환 옮김
272쪽 | 16,000원 | 2012년 9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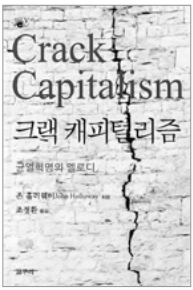
봉기
시와 금융에 관하여

The Uprising
On Poetry and Finance

금융독재에 대한 대항행동에서 예술/시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 책은 오늘날의 불안정한 시대를 위한 자율주의자의 성명서이며,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이 지구 위에 수립한 파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맞서는 구호다. 저자는 경제복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한 신화[허구]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은 불가피하게도 새롭게 급증하는 항의와 폭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낡은 저항의 모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는 경제와 금융 부문들이 사회적 행복, 문화, 공공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요구했던 처방과 "구제"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저자에게 대안은 현재의 위기를 경제적 위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사회적 상상력의 위기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프랑코 베라르디[비포] 지음 | 유충현 옮김
208쪽 | 13,000원 | 2012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크랙 캐피털리즘
균열혁명의 멜로디



Crack Capitalism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들'을 창조하고, 확장하고, 증식함으로써만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균열들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행위를 천명하는 반란의 일상적인 순간들과 공간들이다. 존 홀러웨이의 전작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홀러웨이는 투쟁들의 단절적 배치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수행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우리가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향한 노력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책은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33개의 테제를 통해, 당장 자본주의를 부수기를 원하는 급진적 학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논쟁을 재개시키고자 한다.

2013년 서울 4개 대학 생활도서관과
시민행성이 함께 뽑은 2013년 올해의 인문학 도서

존 홀러웨이 지음 | 조정환 옮김
480쪽 | 25,000원 | 2013년 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저명한 역사가 E. P. 톰슨의 제자인 미국의 역사학자 피터 라인보우의 대표작.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제(專制)를 제한해 온 인신보호영장, 배심재판, 법의 적정 절차, 고문 금지 그리고 커먼즈와 같은 방책들의 축소와 1215년 이후 이 방책들의 원천인 마그나카르타의 역사적 궤적을 제시하면서, 사유화의 탐욕, 권력욕, 제국의 야망이 국가를 움직일 때 오래된 권리들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대헌장과 삼림헌장의 독창적인 역사를 쓰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원용, 지구화의 희생자들의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인종주의의 역사, 박탈의 이야기, 계급사회의 형성, 민주주의 체제들과 공화국들의 헌법사를 다시 쓰는 이 마그나카르타 민중사는 거리와, 의회, 감옥, 노예선, 언론에서 일어난 광범하고 오래된 투쟁들을 서술하여 정치적 권리들의 복원이 어떻게 경제적 권리들의 회복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준다.

피터 라인보우 지음 | 정남영 옮김
432쪽 | 23,000원 | 2012년 8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위험한 언어

희망의 언어 에스페란토의 고난의 역사

La Danĝera Lingvo
Studo Pri La Persekutoj Kontrau Esperanto

인류 보편의 자유로운 언어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어에 대한 이상은 고대이집트의 왕에서부터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을 거쳐 오늘날 국제공통어 에스페란토에 이르기까지 '인류공통어'를 실현해 왔다.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언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고, 다양한 인종의 이주자들과 함께 살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패권어인 영어로 인한 한국사회의 끔찍한 언어 교육 현실은 언어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위험한 언어』는 국제공통어의 이상 실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폴란드의 라자로 자멘호프가 1887년에 창안한 에스페란토의 100여 년의 역사를 명확한 문체와 풍부한 자료들로 소개한 역작이다. 또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패권어를 지향하는 좌우파 세력으로부터 억압과 배제, 고립되었던 에스페란토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국제공통어를 창조하고자 하는 인류의 도전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울리히 린스 지음 | 최만원 옮김
628쪽 | 30,000원 | 2013년 10월 출간
크라운판 변형 | 무선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우리 앞에는, 공유[재](commons)를 무시하고 인류 공동의 부가 사리사욕에 침탈되도록 두거나, 공유인으로서 이 사회의 재건과 인류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공유[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쓴 이 종합적 안내서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행동하게 할 것이다. 즉 공유[재]가, 현대 시장 경제학의 기본 논리에 도전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서게 할 법과 사회적 행위의 틀을 제공하며, 위키피디아, 종자 공유, 공동체 삼림, 협업적소비 등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DIY 혁신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을 이 책은 보여 준다. 인도 토착마을 여성들의 공유 종자 운동, 오픈소스의 효시가 된 리눅스 등 주변에 존재해 왔지만 공유[재]임을 몰랐던 다양한 공유[재]를 소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공유[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공유[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대담하게 제시한다.

데이비드 볼리어 지음 | 배수현 옮김
280쪽 | 17,000원 | 2015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한 장의 잎사귀처럼

How Like a Leaf
An Interview with Donna Haraway

동물학자, 페미니즘 이론가, 문화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다나 J. 해러웨이와 예술비평가이자 해러웨이의 제자인 사이어자 니콜스 구디브와의 대담집이다. 영장류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사이보그 페미니즘 이론 창시,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화비평 등으로 페미니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해러웨이는 이론의 독특함 만큼이나 난해함으로 유명하다. 구디브는 해러웨이와의 대담을 통해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전기적 배경을 추적하고, 그 배경과 해러웨이의 저작을 연결시키며, 해러웨이의 삶과 이론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확인한다. 무엇보다도 해러웨이는 이론가인 동시에 자신의 이론대로 삶을 살아온 행동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대담집은 해러웨이의 여느 저서보다 훨씬 쉽고 생동감 있게 그녀의 이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마치 사이보그처럼 차갑게 느껴지던 해러웨이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론서이다.

다나 해러웨이(구디브) 지음 | 민경숙 옮김
280쪽 | 12,000원 | 2005년 4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
여성인간©_앙코마우스TM를_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Modest_Witness@Second_Millenium.
FemaleMan©_Meets_OncoMouseTM
Feminism and Techoscience

'시체의 일부를 훔쳐 피를 빨아먹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장기 제공자로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 '제2의_천년'의 암울한 단면이다. 지식, 젠더, 인류, 정의 등의 화두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대에 특허를 받고 태어난 생명 형태들인 여성인간©과 앙코마우스TM는 이 시대를 아프게 경험하며 바라보고 있는 '겸손한 목격자'들이다. 해러웨이는 이 겸손한 목격자들의 눈을 통해 정보과학과 기술과학을 탐구하며, 생명권력과 생명정치의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학, 기술과학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경험했다. 이 책은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인 신세계 질서의 그늘을 파헤치고 이 시대의 정치적 의미를 새기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페미니스트 과학사가인 해러웨이의 지적 혜안과 역사적 통찰력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세계와 삶을 바라볼 새롭고 밝은 눈을 제공한다.

다나 J. 해러웨이 지음 | 민경숙 옮김
552쪽 | 25,000원 | 2007년 12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자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이 책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정치인들에게 권력과 명망을 위한 정치놀음이 아닌, 자신이 뿌리내려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욕구를 개발하고 주민 스스로를 주체로 만드는 '풀뿌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둘째로,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며 외국찬양에 열심인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땀과 노력의 대가보다 고상함과 품위를, 실천보다 이론을 강조하는 지식인들에게 자기 주변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라고 충고한다. 마지막으로 신세대들에게 땟깔나는 거대담론보다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남이 강요하는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질주'할 것을 당부한다.

시민자치정책센터
272쪽 | 10,000원 | 2002년 4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몸의 증언』의 저자인 아서 프랭크는 몸의 사회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이론가로, 1991년 본인의 암과 심장병 투병 경험을 담은 회고록 『몸의 의지로』를 출간한 바 있다. 이후 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겪으며 '나았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숙고하게 되었고 질병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서사분석을 한 『몸의 증언』을 쓴다. 그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갈 것이라는 '복원'의 서사, 질병에 난파당한 상태인 '혼돈'의 서사, 질병의 경험을 통해 자아는 다시 형성된다는 '탐구'의 서사 등으로 정리한다. 또 『몸의 증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질병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의 윤리적 의미이다. 질병의 경험은 개인적인 문제 그 자체로 사회적인 문제이며 질병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질병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하고 질병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타자를 위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윤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다.

아서 W. 프랭크 지음 | 최은경 옮김
392쪽 | 21,000원 | 2013년 7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음식과 몸의 인류학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Gender, Meaning and Power

이 책은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리고 그 음식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성별과 파워의 관계를 밝혀주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식이장애, 신체불만족, 출산으로 인한 신체변화, 그리고 성차이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위해 음식연구에 대한 문화비교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 우리가 신체와 성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매혹적인 고찰이다.

캐롤 M. 코니한 지음 | 김정희 옮김
464쪽 | 16,000원 | 2005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음식의 종말

The End of Food
How the Food Industry is Destroying
Our Food Supply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오늘날 식품 생산 방식에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다.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식품의 영양물질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식품의 유해물질 함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재난의 원인을 파헤친다. 오늘날의 식품산업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 생산보다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재난의 원인이다. 이 책은 주로 미국 이외의 곳에서 진행된 과학적 연구 자료에 기초한다. 미국에서는 식품생산 로비스트들이 이런 종류의 연구에 반대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폴릭은 단순한 경종의 차원이 아닌 오늘날의 식품 생산 체제의 거부를 주장하며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 책에는 현대의 산업형 농업기술이 식품의 영양소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끔찍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소비자들은 샐러드에 들어있는 식재료들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왜 재배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토마스 F. 폴릭 지음 | 황성원 옮김
336쪽 | 15,000원 | 2009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잉여로서의 생명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기술과 자본주의

Life As Surplus
Biotechnology and Capitalism
in the Neoliberal Era

『잉여로서의 생명』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정치, 경제, 과학,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가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이다. 멜린다 쿠퍼는 정치적 힘이자 경제 정책인 신자유주의의 논의로부터 생명기술의 역사를 보여 준다. 1970년대 재조합 DNA 기술의 발전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이르기까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유토피아적 주장을 생명 과학 내부의 모순과 연결, 생명의 가치 창조 회로 내 포섭을 전제로 하여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실천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또 레이건 시대의 과학 정책, 생명 과학의 군사화, HIV 정치학, 제약 제국주의, 신체조직 공학, 줄기세포 과학, 낙태반대 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생명경제의 성장의 투기적 충동을 밝힌다. 후기 산업경제의 핵심에 생물학적 생명의 잉여 가치로의 전환이 있다. 이 책은 생명 과학의 전환적이고 치료적인 차원과 더불어 생명경제하에 발현하는 폭력, 의무, 부채의 굴레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제시한다.

멜린다 쿠퍼 지음 | 안성우 옮김
352쪽 | 20,000원 | 2016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 치아빠스 봉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Zapatista
Neoliberalism, the Chiapas Uprising
and Cyberspace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사빠띠스따 행동위원회의 일원인 해리 클리버 교수의 진지하면서도 읽기 쉬운 정치논문 모음집. 이 책에서 저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발효에 때맞추어 1994년 1월 1일 멕시코의 치아빠스 주에서 봉기하여 1997년 8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빠띠스따 투쟁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밝힌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흔히 '원주민 게릴라들'이라고만 알려져있는 사빠띠스따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 또 그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전세계에 유통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해리 클리버 지음 | 이원영·서창현 옮김
448쪽 | 14,000원 | 1998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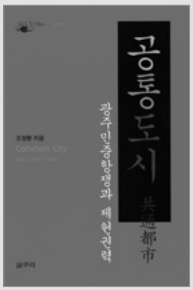
사빠띠스따의 진화

Zapatistas
The Chiapas Revolt and what it means
for Radical Politics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1994년 1월 1일 치아빠스에서 봉기하며 세계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빠띠스따 지도자 부사령관 마르꼬스는 멕시코 정부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때부터 사빠띠스따는 전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왔다. 저자인 미할리스 멘티니스는 사빠띠스따 자율 지대에 머무르면서 이 운동에서 솟아나오는 원주민 정치 이론에 대한 독특한 탐사를 이루어냈다. 이 책은 바디우의 '사건', 상황주의자들의 '상황 창조', 까스또리아디스의 '자율 기획', 네그리의 '제헌권력' 등의 개념들을 이용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끼기 쉽고 드라마틱한 문체로 사빠띠스따가 미래의 정치와 정치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사빠띠스따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혁명적 주체성을 독특한 관점과 치밀한 분석으로 조망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정치철학을 구축하고 있다.

미할리스 멘티니스 지음 | 서창현 옮김
448쪽 | 19,800원 | 2009년 4월 출간
사륙판 | 양장

공통도시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Common City

조정환 지음
200쪽 | 12,000원 | 2010년 5월 출간
사륙판 | 양장

『미네르바의 촛불』,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의 저자이자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로 활동하는 정치철학자 조정환이, 광주민중항쟁 30년을 맞아 광주민중항쟁과 그 이후 30년의 역사를 신자유주의 30년 역사이자 그에 대한 대항 운동 30년의 역사로 조명하는 본격연구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지구적 대항운동의 맥락 속에 광주항쟁을 위치시켜 항쟁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단독 저작이다. 저자는 '군사독재에 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광주'라는 이미지가 은폐한 지난 30년 역사 속의 균열들을 드러내, 5월 운동의 향방을 다시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또 광주민중항쟁, 1987년 시민항쟁과 노동자 투쟁 등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수동적 대응 과정이었던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혁신은 한국을 지난 30년간 세계시장으로, 전지구적 제국의 마디로 편입시켰고, 생산의 비물질화로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등장했다는 입장에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분석한다.

마이너리티 코뮌
동아시아 이방인이 듣고 쓰는 마을의 시공간

Minority Commune

신지영 지음
540쪽 | 25,000원 | 2016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이 책은 2009년 가을부터 2015년 초까지 도쿄·서울·뉴욕의 길에서 만난 소수자 마을(minority commune)에 대한 이야기다. 일본의 반전·반빈곤 활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활동, 야숙자들의 공원 점거 활동, 재일조선인 코뮌과 인종주의적 차별, 3·11 이후 탈원전·반원전 활동, 헤이트스피치에 대항한 카운터 데모, 비밀보호법과 전쟁헌법 반대 활동, 이 순간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순간들은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두물머리, 세월호, 재능교육, 쌍용 자동차 투쟁을 하는 한국의 거리와 연결되며, 2014년 '범죄 인종주의'에 저항하며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아메리카 아프리칸들과 접속한다.

미네르바의 촛불

Candles of Minerva

존재론적 차원에서 '촛불이 승리한다'는 것, 촛불이 삶과 세계를 변형시키는 힘이라는 것이 사회정치적 차원의 승리와 동의어는 아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혁명들이 패배로 보이는 시간에도 실제로 그것이 거대한 도약을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입증했다. 하지만 그것이 혁명은 영원하며 촛불은 승리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론적 차원의 승리 능력을 사회정치적으로 폭발시키고 확산시키는 임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역사적 혁명은 실제로는 존재론적 능력을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부단한 과정 그 자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신이고 지성의 신이면서 동시에 행동의 신이다. 직접행동이 지성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을 뒤흔든 촛불집회의 과정과 그 의미를 참여관찰적 방식으로 분석한 이 책은 지성과 행동의 연결이라는 '오래된 미래'를 위해, 미네르바의 촛불을 위해 바쳐진다.

조정환 지음
404쪽 | 15,000원 | 2009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
카피파레프트와 벤처 코뮤니즘

The Telekommunist Manifesto

국제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전 지구적 이주, 정보경제가 출현한 시대에, 계급투쟁과 소유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개념들과 정치경제학에서 끌어낸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은 문화 생산과 경제 분배의 공유지 기반 협력적 공유 형식에 대한 중요한 기여이다. 클라이너는 '벤처 코뮤니즘'을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면서, 맑스와 엥겔스의 영향력 있는 저서, 『공산당 선언』을 인터넷 시대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한다. 또래협력 모델로서 벤처 코뮤니즘은 자본주의가 할 수 없는 것, 즉 자유문화와 자유 네트워크의 확산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배분한다. 또 저자는 벤처 코뮤니즘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내로 문화를 포획하려 하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자유문화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카피라이트(copyright)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클라이너는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하면서, 또래생산 라이선스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 권범철 옮김
244쪽 | 17,000원 | 2014년 6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절대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Absolute Democracy

전(前)개체적인 것들을 제거하려는 지성의 노력은 개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표현인 만큼 결코 오류나 잘못으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명은 지성의 그러한 노력까지 감싸 안으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고 실재적 시간으로 남아 진화하려는 의지행위이며 개체와 전개체적인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체성의 이 의지행위야말로 자유를 열어내는 행위이다. 촛불 자유발언대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피켓, 깃발, 구호와 함께하는 집회에서 누구나 정치가이듯이, 절대민주주의적 삶정치에서는 누구나 노동-정치가, 정치-노동자이다. 다중의 삶정치를 제도화한 절대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가이듯이 다중을 대의하는 정치가들도 다중의 일부로서 다중에 복무하는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일 것이다.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인 조건에서 대의제가 기능한다면, 그것은 오프라인 다중정치플랫폼(집회)과 온라인 다중정치플랫폼을 통해 형성될 다중의 헌법의지(이른바 '민심'과 '민의')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대의자들은 다중의 이 헌법의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에서만 위임민주주의 정치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소환-해임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의하는 정치-노동자의 소득은 다중의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들이 전유하고 향유해온 정치지대는 다중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재전유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하며, 집회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절대적 구성역량과 헌법의지에 의한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다.

조정환 지음
496쪽 | 25,000원 | 2017년 5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다중
현대의 삶 형태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편의주의, 냉소주의, 두려움, 엑소더스, 호기심, 잡담, 기적, 탁월한 기예 등이 가득한 이 책은 '다중' 개념이 축이 된 세미나의 기록물이다. 빠올로 비르노는 현대의 공적 영역 성찰에서 언어철학, 정치경제학, 윤리학의 개념들로서 '민중' 개념이 아닌 '다중' 개념의 적실을 주장한다. 민중 개념은 다수에서 주권국가 등의 일자로, 다중 개념은 일자에서 다수에 이르지만, 이때 일자는 공동체나 주권이 아닌 소통 및 언어의 공통의 장소다. 언어와 소통은 이방인의 경험, '편치 않음'에서 파생된 불안을 다중 내부에서 도움을 주는 '공통들'이다. 다중은 내부에 상실과 구원, 묵인과 갈등, 예속과 자유를 모두 담고 있다. 다중은 권력을 장악하거나 새로운 국가구축의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다원적 경험들, 비-대의제적 민주주의 형태들, 비-국가적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이러한 이중의 성질로 다중은 전쟁터인 동시에 근대정치이론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오늘날,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빠올로 비르노 지음 | 김상운 옮김
296쪽 | 15,000원 | 2004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다중과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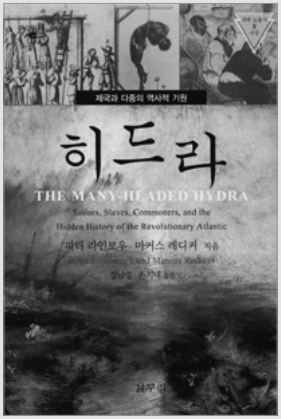
Reflections on Empire

안또니오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쓴 『제국』과 『다중』, 『공통체』, 그리고 『선언』에서 현대세계의 정치 및 경제의 분석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지구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운동 주체들에 관한 사유는, 기존 사회 운동 형식이나 주체들과는 다른 2008년 한국의 촛불집회,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의 시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99%' 점거시위를 통해 거듭 주목받는다. 네그리는 이 책 『다중과 제국』에서 지구화, 전쟁, 민주주의, 주권, 대항권력 및 구성권력, 삶정치, 삶권력 등의 개념들을 다섯 번의 강의와 인터뷰로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네그리의 독특한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요 저작들을 가로지르며 엮어내어 그의 사상적 면모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네그리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삶과 도래할 세계의 모습을 내다볼 수 있게 한다.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 정남영, 박서현 옮김
300쪽 | 17,000원 | 2011년 10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히드라
제국과 다중의 역사적 기원

2008년 인사회 올해의 놓치기 아까운 책 선정,
2008년 간행물윤리위원회
7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The Many-Headed Hydra
Sailors, Slaves, Commoners, and the Hidden History of the Revolutionary Atlantic

라인보우와 레디커는 대서양 양안에서 벌어진 자본가 정복에 대항한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과 달변으로, 묻혀진 에피소드들과 잊혀진 문헌들에 대한 특별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 하워드 진(『미국민중사』 저자)

이 책은 권력과 질서, 자본주의 발전의 상징인 헤라클레스와 맞서 싸운 노예들, 선원들, 평민들 즉 다중의 반란과 저항의 숨겨진 역사를 방대한 역사적 사료를 통해 입체적 구성으로 밝혀낸 역사서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공식적인 역사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장작 패고 물 긷는 사람들', '흑인 하녀들', '아프리카 노예들', '혁명적인 해적 선장',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혁명가들', '진정한 아메리카 혁명의 주역인 잡색부대' 등의 놀라운 사상과 폭발적인 행동을 만날 수 있다. 저명한 영국 역사가 톰슨의 제자인 지은이 피터 라인보우와 국제노동사 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역사학 연구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마커스 레디커는 방대한 사료를 통해 제국주의 초기 식민지 건설과 노예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들은 오랫동안 "민족국가의 포로였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모든 역사 자료들을 "밑에서부터 본다." 그들은 이를 통해 "여러 세기에 걸쳐 보통 부정되고 무시되고 외면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저 깊은 곳에서 형성한 연결관계들"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내놓는다.

피터 라인보우, 마커스 레디커 지음 | 정남영, 손지태 옮김
632쪽 | 30,000원 | 2008년 5월 출간
신국판 | 양장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제도, 연결망, 그리고 권력

The New Political Sociology of Science
Institutions, Networks, and Power

21세기 들어 과학지식의 생산과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상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또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나 비과학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는 지적 작업과 지적 재산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하고 있으며, 법률적·전문직업적 경계를 재구성하고 연구의 실천을 변형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들이 의존하고 있는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간의 건강, 민주주의 사회, 환경에 던지는 함의를 탐색한다.

스콧 프리켈, 켈리 무어 엮음 | 대니얼 리 클라인맨, 스티븐 엡스틴 외 지음 | 김동광, 김명진, 김병윤 옮김
584쪽 | 28,000원 | 2013년 1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과학, 기술, 민주주의
과학기술에서 전문가주의를 넘어서는 시민참여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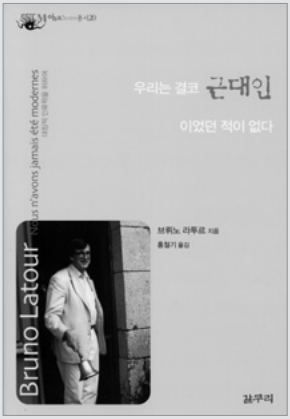
Science, Technology, and Democracy

기후과학자,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 과학사회학자, 사회운동가, 간호학자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한다.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해 온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인간의 필요를 좀더 지향하는 과학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회경제적·이데올로기적 장벽들을 탐구한다. 에이즈 치료 운동, 유럽과 미국의 기술 합의회의, 핵물질 가공과 처분에 대한 규제, 지속가능한 농업에서의 농부 네트워크 등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담은 여러 편의 사례연구들과 함께, 근대과학에 대한 계몽주의적 전제들이 어떻게 이러한 시야를 제한하고 있는지 탐구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그 외의 장들에서는 분명한 대중적 관련성을 가진 쟁점에 관해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날 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대니얼 리 클라인맨 엮음 | 스티븐 엡스틴, 리처드 스클로브 외 지음 | 김명진, 김병윤, 오은정 옮김
308쪽 | 18,000원 | 2012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2009년 간행물윤리위원회 9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étrique

이 책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방식에 던지는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과학논쟁(science wars)'의 한가운데에서 저자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이익이나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회학적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자연적 사실은 사회나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있다는 과학적 '실재론(realism)'의 양 진영으로부터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자 사이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회와 자연, 정치와 과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치·사회적 위기와 환경·기술적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보편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폭로와 근대 계몽주의의 맹목성이 낳은 폭력에 대한 고발은 그 충격과 새로움이 완전히 퇴색되면서 전혀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저자가 보기에 탈근대주의가 처한 '막다른 골목'은 탈근대주의자들의 근대인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근대인들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다. 그들이야말로 근대화를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근대성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이 자리잡고 있다.

브뤼노 라투르 지음 | 홍철기 옮김
408쪽 | 25,000원 | 2009년 7월 출간
사륙판 | 양장

뉴욕열전
저항의 도시공간 뉴욕 이야기

ニューヨーク烈伝
闘う世界民衆の都市空間

‘19세기의 수도’인 도시 파리를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기획으로 분석한 발터 벤야민. 그에게 도시 공간은 ‘지금’에 있어서 복수의 과거기억이 살아있는 장소, 복수의 시간이 교차하는 장소이다. 이 ‘역사철학으로서의 도시론’, ‘도시론으로서의 역사철학’이라는 역설로 벤야민은 도시 파리를 조명한다. 『뉴욕열전』의 저자 이와사부로 코소는 이 벤야민의 기획을 ‘20세기의 수도 뉴욕’에서 생생한 자신의 경험으로 이어간다. 1980년대까지 뉴욕은 클럽, 지하철 구내, 치마타(근린공간의 노상사회), 성 소수자의 공간 등의 공간들로 다양한 인종이 평등하게 토론하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곳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재개발과 9·11을 기점으로 뉴욕의 가치와 위상은 사라진다. 이 책은 이 상실을 뉴욕이 지닌 고유성으로 역전시켜 ‘운동하는 뉴욕의 혁명적 이미지’를 복원한다. 또 ‘탈영토화’, ‘-되기’, ‘미시 정치’ 등 들뢰즈와 가따리의 철학 개념들로 도시공간과 사회 운동의 역동성을 분석하여 곳곳의 활력을 포착한다.

이와사부로 코소 지음 | 김향수 옮김
560쪽 | 25,000원 | 2010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건축, 예술, 이민을 통한, 움직이는 신체, 뉴욕의 생성

流体都市を構築せよ!
世界民衆都市ニューヨークの形成

이 책은 뉴욕의 물질적 조성을 다양한 몽상 즉 ‘유토피아적인 기획’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 토대는 가시적 현실로 흔적을 남기지는 않는 집합신체의 운동으로, 저자는 이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투쟁으로 파악, 그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을 ‘유체도시’라 한다. 2011년도의 세계는 뉴욕과 동경이라는 양극의 ‘유체도시’를 겪는다. 3·11 이후의 절망적 유체도시와 9·17 이후의 희망적 유체도시이다. 원자력재해 후 방사능 유출을 둘러싼 정보와 공간의 조작으로 ‘죽음의 정치’라는 새로운 통치형태가 출현했고, 북미에서는 금융자본주의의 중추 월스트리트의 ‘점거운동’이 보여주듯, 공식 정치나 경제에 대한 희망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는 집합신체가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형태의 생존의 위기와 투쟁의 희망이라는, 지구상의 99%는 극단인 절망과 극단적 희망이라는 분열적 징후를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흔적’, 즉 ‘슬픔의 역사’를 역류하기 위한 가능성으로 출발한다.

이와사부로 코소 지음 | 서울리다리티 옮김
424쪽 | 22,000원 | 2012년 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죽음의 도시, 생명의 거리

뉴욕, 거리, 지구에 관한 42편의 에세이

死にゆく都市、回帰する巷
ニューヨークとその彼方

『뉴욕열전』,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그리고 이 책으로 이와사부로 코소의 뉴욕/도시론 3부작이 완성된다. 뉴욕 월가의 점거하라 운동,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탈핵운동 등 세계적 사건들의 참여와 이론 활동으로 현대 일본에서 가장 급진적인 국제적 사상가로 부상한 코소는 국내의 사회운동, 도시사회학계와 공공예술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오늘날 19세기의 파리, 20세기의 뉴욕 같은 고전적 의미의 메트로폴리스는 해체되었고, 도시의 고정된 장소성은 관계로서의 도시, 운동으로서의 도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시, 세계화, 거리,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한다. 본래 도시에서 도시로,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존재인 민중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삶정치적 도시를 창조해 낸다. 이 책은 도시의 언어, 도시와 예술, 텔레비전의 국민형성, 경찰의 가혹행위, 부동산 예술의 출현 등 42편의 에세이를 통해 세계도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와사부로 코소 지음 | 서울리다리티 옮김
336쪽 | 19,000원 | 2013년 3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카이로스의 문학

Literature of Kairòs

『노동해방문학의 논리』이후 15년에 걸친 오랜 정치철학적 모색 끝에 펴낸 조정환의 세 번째 평론집. 문학, 지식, 문화가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시대에 문학적 창조와 생성의 시간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열리는가? 민족문학, 민중문학, 노동문학, 노동해방문학의 삶문학(bioliterature)으로의 재구성, 리얼리즘의 해독제로서의 버추얼리즘(virtualism)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 리얼리즘-(포스트)모더니즘 논쟁, 분단체제 논쟁, 민족문학 논쟁, 문학권력 논쟁, 문학 위기 논쟁 등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문학장의 핵심 쟁점에 대한 비판적 개입. 서정주, 김지하, 박노해, 백무산 등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거장들의 문학적 행보에 대한 예리한 분석.

조정환 지음
592쪽 | 24,000원 | 2006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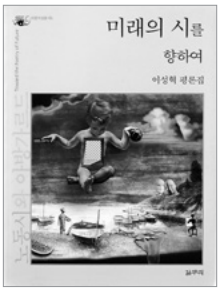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Infinite Political Loneliness

이 책은 부산 동아대학교 권명아 교수가 이끄는 연구모임 <aff-com(아프-꼼)>과 도서출판 갈무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aff-com 총서' 시리즈의 첫 도서로 " '정동'이나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정동'과 '공동체'라는 문제틀을 삶의 구체적인 지평 속에서 다시 새겨 넣고, 그 삶의 부대낌 속에서 정동과 공동체에 관한 이론을 재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연구 성과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있게 그려내고 있다.

권명아 지음
296쪽 | 18,000원 | 2012년 6월 출간
사륙판 | 양장

미래의 시를 향하여
노동시와 아방가르드



Toward the Poetry of Future

미래, 즉 미지의 시간을 창조적인 것으로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적인 것은 창출된다. 시인들이 감행한 미지에로의 모험의 산물이 작품으로서의 시라고 할 때, 한 편의 시 작품은 사회 혁명을 응축하고 예시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와 '아방가르드'의 관계를 고찰한다. 아방가르드는 삶과 분리된 제도 예술을 비판하면서, 예술을 통해 삶을 시적인 것으로 고양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삶을 화폐에 종속시키는 사회와 문화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삶의 존엄을 지키고자 고도의 착취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탄생한 한국의 노동시 운동은 아방가르드와의 삶정치적 접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회 혁명은 다중의 예술적 창조성에 의해 미지의 미래를 시적인 것으로 구축해나가는 삶정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두 운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혁 지음
544쪽 | 23,000원 | 2013년 2월 출간
크라운판 변형 | 무선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
1987년 이후 문학 20년,
종언인가 진화인가?

Literature in the Age without Minjung/People

6월 항쟁, 6·29 선언, 7·8·9 노동자대투쟁 등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987년 그 이후, 20년이 되는 2007년. <다중네트워크센터>에서는 꾸준히 진행해 온 '문학비평모임'의 연구 성과로서 '카이로스의 문학'이라는 주제의 집단 강좌를 열었다. 1987년 이후 문학 20년사, 가라타니 고진에 의해 촉발된 '근대문학의 종언' 논의, 2000년대 새로운 문학의 흐름, 오늘날 문학의 의미 등 오늘날의 작가들과 독자들의 갈급한 주제들이 토론되었는데, 지난 20년간 문학에서 이루어져 온 조용한 혁명들과 2000년대 문학의 탈주선에 대해 탐구하고자 기획되었다. 오늘날 민중의 소멸이 근대문학의 종언, 근대문학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짐은 자연스럽고 또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학의 종언으로 될 것인가?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의 검토는 문학이 다중의 생성 및 진화의 흐름에 합류하여 그것의 정신적 힘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한에서, 근대문학의 종언은 오히려 문학 진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것이다.

조정환, 정남영 외 지음
344쪽 | 15,000원 | 2007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리얼리즘과 그 너머
디킨즈 소설 연구

디킨즈 소설 연구. 이 책의 1부의 배경에는 7,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창조적·현실비판적 문학운동에서 성장해 온 리얼리즘론, 민족문학론, 민중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 등이 자리잡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내 전위운동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변혁의 열기가 쇠퇴하고 이에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문학론들이 거의 사장될 지경에 처해서 저자는 기존의 리얼리즘론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작업을 학위논문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II부에 실린 논문들은 학위논문 발표 이후의 모색 과정의 중간 결실들이다.

정남영 지음
256쪽 | 10,000원 | 2001년 9월 출간
신국판 | 무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Politics and Culture
Working Hypotheses for
a Post-Revolutionary Society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의 연계문제를 다양한 현대사상의 문맥에서 보다 확장시키는 한편, 실제의 정치와 문화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철학적 문화분석서. 라이언은 해체론뿐만 아니라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아울러 그 한계를 지적한다. 보다 더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삶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문화적 형식이나 교환, 분배의 형식 같은 도구들과 형식들의 선택에 의존한다고 보면서 형식의 차원에까지 확장된 의미에서의 물질성을 중시하는 이론(유물론)을 실천하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마이클 라이언 지음 | 나병철·이경훈 옮김
384쪽 | 10,000원 | 1996년 5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진실 말하기
권력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 왔는가

Telling the Truth
Socialist Register 2006

이 책은 무엇보다 '진실'에 관한 책이지만 그 진실은 또한 '거짓말'이다.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다는 것, 진실이란 명약관화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되어 온 것임을 알게 된다. 2008년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민주주의와 권력'의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기한다.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왜곡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권력과 공모하는가. 빈민들은 숫자놀음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국가는 왜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전쟁을 일으키는가. 독자들은 오늘 한국의 현실이 세계 도처에서 권력에 의해 얼마나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테리 이글턴, 콜린 레이스 외 지음 | 신기섭 옮김
328쪽 | 18,000원 | 2008년 8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2003년 초 촛불시위까지 전개되었던 국내외의 시사적 문제들을 '제국의 석양'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흔히 생각되는 바와는 달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1997년 경제위기에 이어 2000년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되어 왔으며,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위기를 심화시켜 제국의 종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 관점이다. 또한 시장, 공공성, 성 담론, 매스컴, 지식인, 의료, 법률, 폭력, 복권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속에서 제국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기로 몰아넣는 갈등의 계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검토한다.

조정환 지음
324쪽 | 12,000원 | 2003년 4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

영화로 본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

Films with 10 Million Viewers and Politics for 10 Million Voters

현대 사회의 매체들은 생산과 소비를 함께 수행하는 생비자(prosumer)로 기능한다. 영화를 문화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정치학적으로 볼 때 정치가 실현되고 정치적 의미가 발생하는 장이다. 특히 정치 영화에서 문화적 사건은 정치적인 것을 재현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재하는 사건이 된다. 사건으로서의 영화에서 현실 속의 주체인 관객은 영화를 통해 재현되거나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시·공간으로 영화를 인식하고 영화와 상호작용한다. 대선에서 경쟁력 있는 제3후보가 적어도 한 명이라도 출마한다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유효 투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해 당선 확정에 근사한 수치다. 2005년 이후 천만 관객을 넘은 한국 영화들은 권력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었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정병기 지음
352쪽 | 19,000원 | 2016년 8월 출간
사륙판 | 무선

예술과 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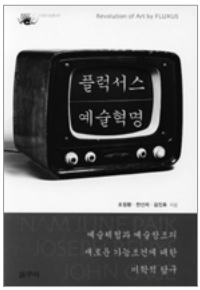
예술에 대한 아홉 편의 서신

Art et Multitude
Neuf Lettres Sur l'Art

다중이 새로운 주체성으로 출현한 시대의 예술은 무엇일까? 안또니오 네그리에 따르면, 창조한다는 것은 초과이며 그 형식은 생산의 잉여에서 발견된다. 제국화 경향의 지구촌에서 창조와 생성은 공통적인 것 내에서 포착되는 특이성들, 그 대상들, 그 기호들, 즉 다중을 부단히 재창조하는 저항 행위이며 예술은 혁명을 예비한다. 이 책은 지안마르코, 카를로, 지오르지오 등 가상의 인물들과 프랑스어판 역자인 마리 막들렌느, 스페인어판 역자인 라울 산체스 등에게 네그리가 보낸 아홉 편의 서신이며 추상, 포스트모던, 숭고, 집단적인 노동, 아름다움, 구축, 사건, 신체, 삶정치 등 현대예술에 대한 아홉 개의 테마를 다룬다. 이딸리아의 서정시인 레오파르디, 브레히트, 피나 바우쉬, 보들레르와 오스카 와일드, 마네, 쿠르베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그는 단언한다. 우리는 모두가 예술가이며,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술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 책은 '예술=다중'에게 보내는 존재론적이며 유물론적인 저항과 혁명의 '서신'이다.

안또니오 네그리 지음 | 심세광 옮김
244쪽 | 15,000원 | 2010년 8월 출간
사륙판 | 양장

플럭서스 예술혁명



Revolution of Art by FLUXUS

오늘날 예술을 이끄는 지배적 힘은 시장이다. 시장의 시공간 전체가 예술화하고 상품들의 판매와 구매는 유용성보다 심미성에 더 의존한다. 평론가들의 모호하고 몽롱한 아우라 속에서 미술품의 실제적 평가는 옥션에서 내려지며 달러, 석유, 금, 주택과 같은 금융투자의 대상이 된다. 예술의 상품화와 금융화는 건물, 공원, 광고판, 극장, 도로 등 도시 전체를 미술품화, 미술관화하였고 예술은 화랑, 뮤직홀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화되었다. 이는 색과 캔버스, 화음과 악기에 갇힌 예술을 해방시켜 대중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상황주의들의 아방가르드 운동이 추구한 꿈이 아니던가? 즉 탈근대의 부르주아 상품세계가 혁명적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요구들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에 응답하는 이 책은, 1960년대에 시작된 혁명적 아방가르드 예술운동 플럭서스에 대한 상세한 분석서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예술과 예술가가 무엇이며, 예술과 삶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다.

조정환, 전선자, 김진호 지음
252쪽 | 17,000원 | 2011년 3월 출간
사륙판 | 양장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부르디외 사회이론으로 문화읽기

art in SOCIETY

비트겐슈타인, 가핑클, 부르디외, 단토, 하우저, 라투르, 월하임, 평론, 비엔날레, 대안공간, 미술잡지, 판화, 백남준, 최경태, 노순택, 선무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사회의 문화지형. 예술과 예술가를 유혹하는 것은 이제 사회일지도 모른다. 사회는 예술가들이 창조해 낸 예술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하고 더 마술적이다. 물론, 이때 사회가 수행하는 이 아름다움과 정교함, 그리고 마술은 예술적 창조물이 갖는 속성과는 다르다. 여기서 예술과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많은 예술가들이 당대의 사회적 주제와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역시 그러한 방식의 예술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을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김동일 지음
428쪽 | 20,000원 | 2010년 12월 출간
신국판 |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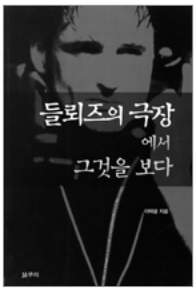
들뢰즈의 씨네마톨로지

Deleuzian Cinematology

들뢰즈의 이미지 존재론의 철학사적, 개념적 배경을 고찰한 뒤, 영화사의 유파들과 작품들을 해설하며 씨네마톨로지의 철학적, 정치적 역량을 드러낸다. 씨네마톨로지란 영화(cinema)와 증후학(symptomatology)의 합성어로 들뢰즈가 『시네마』 1권, 2권에서 제시한 이미지 분류학을 말한다. 이미지를 질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류학은 우리 삶에 어떤 함의를 가질까? 이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분류의 목적은 이면의 잠재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삶의 필요에 따라 이미지의 부분만을 보는 기만적인 지각으로부터 단절을 꾀하는 과정으로서의 씨네마톨로지는 바로 여기에서 철학적이고도 정치적인 함의를 지닌다.

조성훈 지음
280쪽 | 19,000원 | 2012년 6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들뢰즈의 극장에서 그것을 보다



이 책에서 시도된 나의 연극은 60년대 이후 전개된 서구 문화의 혁명적 형식변환을 실연해 보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흐름일 수 있다. 이 흐름들은 읽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무늬의 형상을 비쳐 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나는 이 책에서 애써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상에 내재한 철학적 한계에 대해 침묵했다. 이런 작업은 이 책이 아닌 다른 기회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의 제스처는 배우의 그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오직 배우는 연기에 충실할 뿐이다. 이제 막이 내릴 때까지 이 책의 운명은 이 연기의 진정성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이택광 지음
168쪽 | 8,000원 | 2002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옥상의 정치

Politics of the Roof

2009년 1월 용산 남일당 옥상 참사, 2009년 7월 쌍용차 평택 도장공장 옥상에서 경찰들의 노동자 진압, 2011년 1월 6일 시작된 부산 한진 중공업 85호크레인 위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쌍용차 노조원 송전탑 시위,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강정 주민들이 오른 망루,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며 오른 절벽. 왜 이들은 옥상으로, 탑으로, 망루로, 절벽으로 오르는가? 2014년 3월, 비평가, 예술가, 큐레이터, 출판인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등 5대 도시에서 <옥상의 정치>라는 '연합전시' 를 열었다. '옥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갈등을, 신자유주의하에서의 희망과 절망의 교차를, 나와 이웃 사이의 네트워크를, (불)가능한 만남을 모색하는 고투의 과정을 드러낸다. 지금 여기의 삶이 폐쇄회로로 조직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거부하면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다중지성의 활동과 예술적 표현이 이 책에 응축되어 있다.

김만석, 조정환 외 지음 | 김미정 옮김
288쪽 | 18,000원 | 2014년 4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매혹의 음색

소음과 음색의 측면에서 본 20세기
서양음악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개론서

Timbre of Attraction

우리 주변의 소리 중에는 악음(도, 레, 미 등)보다 소음이 훨씬 더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멋진 풍경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허다한데 왜 지리산의 시냇물 소리는 녹음하여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까? 우리의 음악청취 경험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으로 한정되었을까? 음악의 가능성은 거기까지일까? 이 책은 근대 서양음악의 역사와 이론을 '음색'과 '소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서양음악의 대부분은 높낮이를 갖는 음을 재료로 음을 다루는 정형화된 기법에 기초한다. 20세기 초반에 음고가 아닌 음색, 소음 등이 여러 작곡가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음색을 부차화, 장식화하기보다 조직화·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음악, 조직음악, 전자음악, 스펙트럼음악 등이 시도된다. 이 책은 이 내용들을 인문학적·과학기술적 관점과 통합시킴으로써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고 음악에 대한 사유를 우리 삶, 또 생명 자체에 대한 통찰과 연결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김진호 지음
440쪽 | 25,000원 | 2014년 8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나 자신이고자 하는 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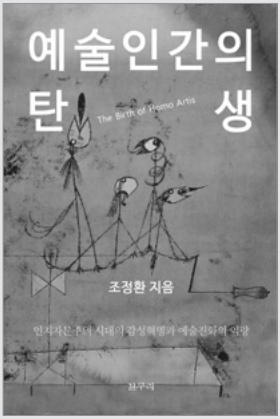
관동대지진에서 태평양전쟁 발발까지의
예술 운동과 공동체

私自身であろうとする衝動
関東大震災から大戦前夜における
芸術運動とコミュニティ

21세기 신자유주의와 20세기 초 일본사회를 비교하고 대화하게 함으로써 저자는 두 시대 모두에서 생명[삶]이 사회적·정치적 화두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21세기에 우리들은 '나 자신'의 삶을 부단히 가꾸고 계발해야만 한다고 강요 받는다. 20세기 초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나 자신'은 예술과 창조의 시작점, 분출하는 생명 그 자체였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이후의 일본 사회와 문화는, 2011년 3월 11일 동북부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일본 및 세계사회와 문화의 한 축도를 보여준다. 이 책은 생명[삶]을 중심에 놓고 노동·정치·예술을 통합적으로 사고했던 20세기 초 일본 예술가들의 생각과 작품을 해부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우리 시대에 생명[삶]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20세기 초의 미적 아나키즘의 계보에 다가가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의 원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라카즈 시게루 지음 | 한태준 옮김
384쪽 | 20,000원 | 2015년 3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예술인간의 탄생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감성혁명과 예술진화의 역량



The Birth of Homo Artis

이 책은 예술과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중첩되고 혼성되는 오늘날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예술과 정치의 관계라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다시 사유한다. 첫째, 이 책은 20세기 말에 다시 부흥한 예술종말론들의 역사적 성격과 위치를 규정하고 예술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오늘날의 예술종말론적 상황이 예술의 일상화와 보편화라는 전례 없는 조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 상황은 예술의 종말이 아니라 '누구나'가 예술가일 수 있는 예술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기회로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둘째, 이 책은 예술인간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생성 맥락을 탐구한다. 예술인간은 기존 예술가 형상의 반복일 수 없으며, 노동인간이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가 노동인간이 되는 생성과 변형의 지평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인간형상이다. 셋째, 이 책은 20세기 후반에 제기된 다양한 예술진화론들이 예술인간의 탄생을 표현하고 또 예비하는 이론적 형태들이었음을 밝힌다 넷째로, 자기계발을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기계발, 자유, 심지어 자율성 일반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좌파적 접근법을 극복하고 넘어설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자기해방, 자기실현, 자기진화로서 실질화시키면서 자기되기를 넘어 생명되기, 공통되기로 심화해야 한다. 다섯째로, 이 책은 기존의 제도 예술가들과 비예술가들이 수행할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예술가들 에게는 지금 자본의 능력으로 귀결되고 있는 자신의 예술적 능력과 솜씨와 자원을 다중의 인지혁명과 삶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스파이로 될 것을 요구한다. 비예술가 다중에게는 지금까지 억압되고 망각돼온 자신들의 예술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본이 아니라 삶에 내재적이고 충실한 것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예술인간의 탄생은 근대 인류의 진화사가 이뤄내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환 지음
428쪽 | 22,000원 | 2015년 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양장

예술로서의 삶
니체에서 푸코까지

Life as Art
Aesthetics and the Creation of Self

먹고, 마시고, 말하고, 즐기고, 고통을 받고 숨을 쉬는 한 우리는 계속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는데, 『예술로서의 삶』은 이러한 삶의 철학적 물음에 충실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재커리 심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물음에 예술로서의 삶이라는 철학자들의 통찰을 해법으로 제시한다.니체,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마리옹, 카뮈, 푸코에 이르기까지 19~20세기를 수놓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저자는 '예술'을 매개로 정돈한다. 참된 자유가 구현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세계'는 우리에게 창조적 삶을 위한 소재들을 끊임없이 내주고 있다. 우리의 삶을 예술적으로 구성하는 소재들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 예술가적 주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서에서 제시된 철학자들의 여러 통찰을 통해 우리는 예술가적 자기 창조라는 좋은 삶을 향한 구체적 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커리 심슨 지음 | 김동규, 윤동민 옮김
500쪽 | 26,000원 | 2016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작곡, 지식과 과학의 반영

Mozart Homo Sapiens

『매혹의 음색』의 저자이자 음악학자인 김진호의 두 번째 단독 저서. 저자는 진화론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지식사회학, 중력 이론이나 엔트로피 이론 같은 자연과학 이론들, 사회학적 관점들, 그리고 음악학의 도움을 받아, 음악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가 같은 길에 있는 연구 프로젝트라는 점을 보여준다. 6~3만 년 전의 기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지능은 급격히 상승했다. 인류 최초의 악기는 3만 5천 년 전에 등장했고, 이 시기에 인지혁명이 진행 중이었으며 엄청난 문명적 자료들과 현대적 예술이 등장했다. 인지고고학자 스티븐 미슨은 그 원인으로 인류의 통합적 마음을 제안한다. 여러 영역 특이적 지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 마음이 구성되었으며, 지능 간의 연관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포함한 고전/현대음악 또한 인류의 통합적 마음과 진화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의 음악은 인간의 다양한 세계 인식을 표현/반영한다.

김진호 지음
696쪽 | 30,000원 | 2016년 4월 출간
사륙판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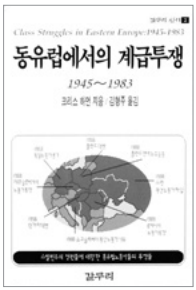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1994년 1월 1일에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라깡도나 정글에서 터져 나온 사빠띠스따 봉기만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절실하게 되새기도록 하는 것이 있을까? 봉기 십 주년에 즈음하여 출간된 이 책은 이제 21세기 초에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혁명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고전적 혁명 주체로서의 레닌주의적 주체가 붕괴한 상황에서 혁명적 행동을 개시하여 10년(2014년 현재까지는 20년)이 넘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사빠띠스따 사건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며 영감을 제공한다.

워너 본펠드, 쎄르지오 띠쉴러 외 지음 | 조정환 옮김
384쪽 | 15,000원 | 2004년 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 1945~1983



Class Struggles in Eastern Europe, 1945-83

1945년에서 1983년에 걸쳐 스딸린주의 관료정권에 대항하는 동유럽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역사서. 1989년 이후 동유럽을 휩쓴 혁명적 물결과 스딸린주의 정권들의 붕괴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면면히 이어져 온 노동자 투쟁의 산물임을 설득력 있게 밝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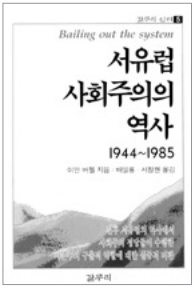
크리스 하먼 지음 | 김형주 옮김
464쪽 | 12,000원 | 1994년 1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소련 해체 과정의 저변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동력을 분석하고 그 이후 동유럽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와 그 성격을 해부한 역사 분석서이다. 필자들은 이미 실패로 끝난 뻬레스 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국가자본주의 소련의 기저에 흐르고 있던 사회적 모순의 폭발과 그에 대한 관료 지배계급의 대응 방식으로 설명한 후,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 사회들에 지속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국가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이 위기를, 사회를 재편하여 통제하려는 사회 상층부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라는 두 갈래 흐름의 화해할 수 없는 충돌로 설명한다.

크리스 하먼 지음 | 이원영 편역
272쪽 | 7,000원 | 1995년 2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 : 1944~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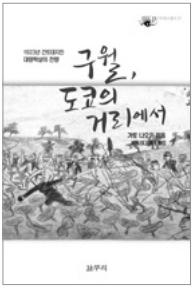
Bailing Out the System
Reformist Socialism in Western Europe, 1944-85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공산당들의 역사를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 유럽의 사회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산당까지도, 부르주아지가 처한 지배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체제 구출의 역할을 해 왔음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이안 버첼 지음 | 배일룡, 서창현 옮김
368쪽 | 9,600원 | 1995년 7월 출간
신국판 | 무선

9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



九月, 東京の路上で

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

90여 년 전, 간토대지진 직후인 1923년 9월의 도쿄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천 명의 조선인을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일본인들이 살해하였다. 이 책은 그 순간을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도쿄의 기억으로 되살려내며 그 사건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현장으로 재현한다. 당시의 도쿄 거리는 공감과 비인간화가 싸우는 현장이었다. 그 도시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으며, 또다시 그때와 동일한 '공감과 비인간화의 투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가토 나오키 지음 | 서울리다리티 옮김
292쪽 | 19,000원 | 2015년 9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이 책은 기존 진보적 논자들 다수의 주장과 달리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당대의 권력블록에 의해 민족주의 기획으로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민족주의 기획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기 주요 사회-정치적 문제상황을 민족주의의 좌절이나 근대화의 굴절, 종속과 저발전의 심화가 낳은 귀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실현되어간' 민족주의와 발전, 경제자립화 과정의 모순적 결과물이었다고 파악한다.

김보현 지음
400쪽 | 15,000원 | 2006년 10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그대들을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하리라
KTX여승무원 문집

KTX 승무원 노동자들이 쓴 진솔하고 감동적인 에세이 모음집. 2006년 3월 1일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였고, 5월 15일 집단으로 정리해고되었다. 이 책에는 승무원들의 글뿐 아니라 KTX 투쟁을 지지하는 16인의 노동시인, 문인들의 글, <노동만화네트워크> 만화가들이 그린 수십 컷의 삽화를 모았다.

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 지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엮음
노동만화네트워크 그림 | 160쪽 | 8,000원
2006년 7월 출간 | 신국판 | 무선

47, 그들이 온다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투쟁문집

2003년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의 '철도구조조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벌이며 완강히 저항했으나 공권력을 막아내지 못했다. 2003년 6월 28일 새벽 4시의 '투쟁명령'에 따라 함께 현장을 떠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이 있다. 이 책은 그들이 누구인지, 왜 투쟁에 앞장섰고, 왜 해고됐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기록이지만 2만 5천 철도노조 조합원의 희망을 담아 '그들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엮음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지음
192쪽 | 8,000원 | 2007년 6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철도노동운동사

철도노동운동사는 철길을 따라 달려온 100여 년의 철도노동자의 역사이다. 전평시기를 딛고 해방 후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시기를 겪은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재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그러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이 한 권에 담겨져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13년까지의 역사를 투쟁하는 철도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만화의 가시성, 대화의 현장성,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성이 서로 어울려 인포테인먼트를 선사해 준다. 『만화로 보는 철도이야기』는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신념과 사명감으로 국민의 발인 철도를 지킨 노동자에게 바치는 헌시이다.

기획 김명환 | 글 김병구·지영근 | 그림 최정규
232쪽 | 12,000원 | 근간
크라운판 변형 | 무선

내 사랑 마창노련 (상), (하)

백 장 이상의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담고 있는 이 책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자주적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생생한 보고문학적 필치로 그려낸 문학적 역사서이다. 한국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지난 10여 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는 이제 거짓말, 조작, 은폐, 무시, 왜곡을 포함한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지워 버릴 수 없도록 뚜렷한 형상을 얻게 되었다.

마창노련사발간위원회 발간 | 김하경 지음
(상) 424쪽 | 12,000원 | 1999년 6월 출간
(하) 384쪽 | 10,000원 | 1999년 6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바틀비

Bartleby, the Scrivener

장편소설『모비 딕』(*Moby Dick*)의 작가로 유명한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의 1853년작 단편으로서 일반 독자들에게는『모비 딕』만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 비평가들이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뽑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실존주의적 부조리극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운명을 그린 것이다.", "예수의 수난이나 동양적 수도승의 고행록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던 합리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심화되고 있던 노동의 소외를 그린 것이다." 등의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 책은 영어학습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허만 멜빌이라는 대문호의 고전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허만 멜빌 지음 | 정남영 주해
224쪽 | 9,000원 | 2006년 7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원더랜드에서의 앨리스의 모험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한 영문학자에 따르면『원더랜드에서의 앨리스의 모험』(*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은 20세기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아동문학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신분석, 맑스주의, 논리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석이 제시되어왔을 정도로 광범하게 읽히며 해석되고 있다. 특히 현대 철학의 거장 질 들뢰즈는 이 작품에는 "직접적인 즐거움에 덧붙여 무언가 다른 것 즉 의미와 무의미의 놀이, 카오스모스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캐럴 지음 | 정남영 옮김
332쪽 | 14,000원 | 2007년 9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시로 읽는 니체

Reading Nietzsche Through Poetry

1990년 제3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삶의 구체성과 진지함을 시로 표현하고 가르치는 데 애정을 쏟아온 시인 오철수의 시에세이다. 이시영, 기형도, 강수니, 조문경, 최영미, 그리고 월트 휘트먼 등 현대 시인의 시 83편을 니체의 사상과 접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삶에 대한 사랑을 힘있게 설파한다.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삶이 좌절과 허무를 넘어 자기긍정의 예술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오철수 지음
492쪽 | 18,000원 | 2012년 2월 출간
신국판 | 무선

봄 속의 가을

Aŭtuno en la Printempo

노벨문학상 후보에 여러 번 올랐던 중국의 대문호 바진의「봄 속의 가을」과 바진에게 영감을 준 헝가리 작가 율리오 바기의 에스페란토 원작소설「가을 속의 봄」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다. 바진은 우리에게는 소설『가(家)』로 잘 알려진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다. 율리오 바기는 헝가리 사람으로 연극배우이자 작가이자 에스페란토 교육자이다. 그는 1911년 처음 에스페란토를 알게 된 후 50년이 넘도록 에스페란토 운동을 했으며, 그의 이런 정열적인 활동이 작품 속에 녹아나 바진과 같은 대문호에게 영감을 주었다.

2008년 문광부 우수도서 선정

바진, 율리오 바기 지음 | 장정렬 옮김
300쪽 | 9,500원 | 2007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길 밖의 길

백무산 시인의 '백무산 길 잡도리' 시리즈 중 첫 번째 시집. 시인은 초월적 권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의 충만과 자율을 노래한다. 시인에게 길은 우리 삶의 외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길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시인은 외부의 길을 쫓으며 삶 외부에 권력의 환상을 쌓아왔던 이전의 혁명을 반성적으로 사유한다. 이러한 벌거벗은 사유로부터 삶에서 삶으로 이는 바람을, 삶에서 움트는 새로운 혁명의 상을 구성하려는 시인의 노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작고 미세하지만 충만한 힘에로, 세상을 새롭게 짜는 삶의 미풍에로,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태풍에로 이끈다.

2008년 민주노총 5월의 권장도서 선정

백무산 지음
144쪽 | 7,000원 | 2004년 6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숭어의꿈

1992년에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 김하경의 소설집『숭어의 꿈』을 통해 우리는 '숭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숭어는 낚시 바늘을 물지 않는 이상한 물고기이다. 뛰는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미끼를 물지 않고 뛰어 올라 그 미끼를 바라본 이상한 물고기 숭어. 숭어의 눈으로 바라본 물구나무 선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낚시 바늘이 먹기 좋은 미끼로 늘려져 있다. 미끼를 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여기! 미끼없는 자율적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숭어의 꿈이 펼쳐진다.

김하경 지음
248쪽 | 8,000원 | 2003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산촌

The Mountain Village

1920년대 중국 중부 후베이성 작은 산골 마을의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상과, 혁명으로 인한 그들의 삶의 극적 변화를 담은 역사 소설이다. 번역가이자 에스페란티스토, 잡지 편집자, 항일 투사였던 중국 작가 예쥔젠이 서방 세계에 중국 혁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1947년에 영어로 쓴 책이다. 출간 후 에스페란토를 비롯하여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어판은 에스페란토판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책은 '춘성'이라는 한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 극적인 변화 속에 놓인 중국 농부들의 삶을 자세히 묘사한다. 『산촌』은 중국 혁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자세히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의 핵심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책은 역사를 의미 있게 기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며 동시에 이 시대에도 여전한 부패와 착취, 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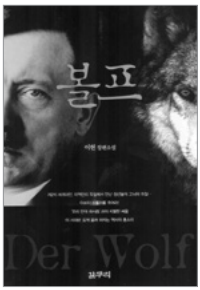
예쥔젠 지음 | 장정렬 옮김
464쪽 | 15,000원 | 2015년 5월 출간
사륙판 | 무선

젊은 날의 시인에게

"삐라를 만드는 시인"의 산문집. 이 책은 김명환 시인의 '젊은 날들의 회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인'을 꿈꿨지만 정작 시인이 되자 '시인'이기보다 '문예선전활동가'로 살아 왔다. 그래서 그는 철도노동자, 삐라작가, 활동가, 시인이다. 월간 『노동해방문학』 문예창작부 시절, 철도노조민주화투쟁시절, 철도민영화반대투쟁 시절의 이야기들이 1부와 2부에 실려 있다. 3부에는 짧은 소설과 동화가 묶여 있다. 수배 중인 월간 『노동해방문학』 발행인 김사인 시인이 첫눈 오는 날 집에 다녀간 「첫눈」, 「함박눈」은 신경림 시인의 첫사랑 이야기다. 4부에는 선언, 칼럼, 에세이, 논설, 호소문 등이, 5부는 철도노조 민주화투쟁 이야기를 무협지로 그렸다. 그는 "돌이켜보면, 무슨 대단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삐라만 안 만들었으면, 그 정성과 노력으로 빛나는 시 한 편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삐라들이, 그 삐라를 만들고 뿌리던 시간들이, 내 빛나는 시였다는 걸 알았다."라고 썼다.

김명환 지음
183쪽 | 10,000원 | 2016년 11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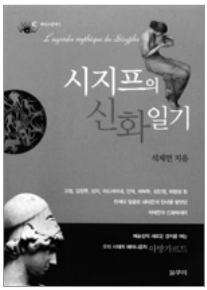
볼프



신예 작가 이헌의 첫 장편소설『볼프』가 출간되었다. 시종일관 긴장감과 박진감을 잃지 않으면서,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의 뇌리 속에 연출해 나간다. 읽어갈수록 소설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작가의 솜씨는 1940년대 베를린이라는 시공간을 치밀한 묘사로 복원해내는 데 성공하면서 한 권의 책 속에 거대한 영화 스튜디오를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베를린에서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는 다섯 청년의 초상(肖像)은 결기 있는 청년들의 무용담을 보는 듯하지만 치열한 내면적 갈등에 대한 밀도 있는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파시즘과 오이디푸스 삼각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든다.

이헌 지음
384쪽 | 9,800원 | 2004년 1월 출간
신국판 | 무선

시지프의 신화일기



신들의 세계를 엿보는 것에 그치는 '신화 안내서'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이 역사의 상처와 여성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틔우는 신화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신화 에세이'이다. 신화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탄생 되어지고 굳어진 현실의 경계들을 밀어내며 미래가 들어올 틈새를 열면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 삶이 된다. 신화를 차용한 소설로, 시로, 철학에세이로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어 흐르는 석제연의『시지프의 신화일기』는 우리의 이 부박한 삶을 다양하게 할 것이다.

석제연 지음
222쪽 | 8,800원 | 2003년 12월 출간
신국판 변형 | 무선

기린은 왜 목이 길까?

짧은 목을 가진 기린들과 아이들 없는 학교
어느 생물 선생님의 3일간의 행적 :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종(人間種)

Der Hals der Giraffe
Bildungsroman

유디트 샬란스키의 이 책은 교양소설 또는 성장소설 장르의 새 장을 여는 작품이다. 다윈주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완고한 성격의 잉에 로마르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기존의 교양소설의 인물상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뒤집는다. 주인공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자신의 목표만을 좇으며, 변화하는 자연·상황·주변 사람들에 대해 극도의 예민 반응을 보인다. 학생을 천적으로 여기는 그녀는, 학생들에게 생존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늘 강조한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소설 후반부의 여러 사건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이 소설은 무한경쟁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인 우리 교육 현실을 돌아보게 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극도의 냉소주의적 태도가 삶을 얼마나 황폐하고 서글프게 만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인구감소는 학교를 문 닫게 만들고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마지막 인간종이 사라지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유디트 샬란스키 지음 | 권상희 옮김
360쪽 | 16,000원 | 2017년 2월 출간
사륙판 |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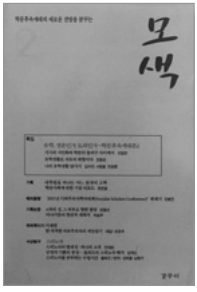
학회평론
1992년 9월 창간. 학생운동 학술지

읽을꺼리
1997년 11월 창간
카피레프트모임의 해적판저널

관악문화
1999년 12월 창간
단행본과 잡지를 결합한 무크지

교육비평
2000년 가을에 교육개혁의
새 길을 열고자 창간된 계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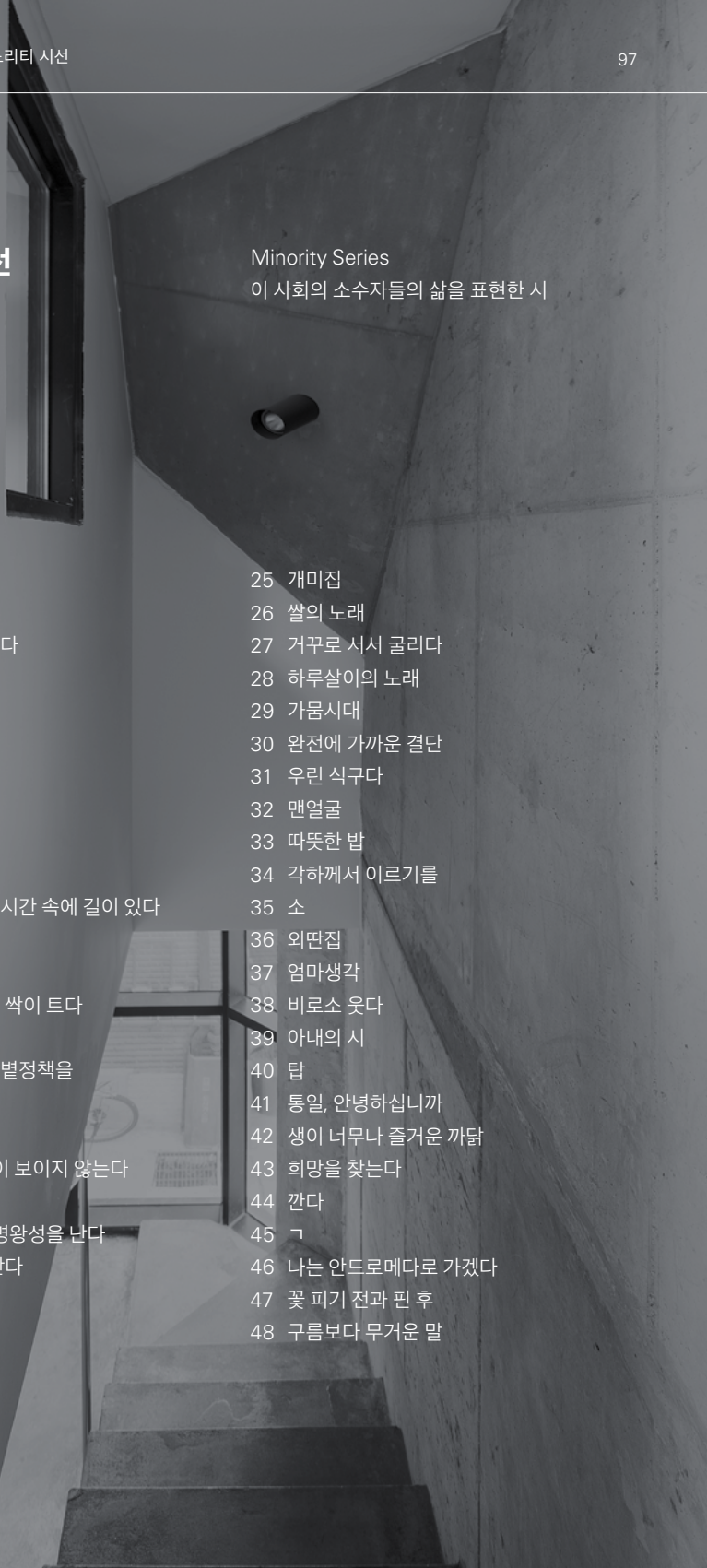
모색
2001년 1월 창간. 학문후속세대의
새로운 전망을 꿈꾸는 무크지



aReview
2001년 4월 창간.
제2대학 학회/학술운동지

마이노리티 시선

Minority Series
이 사회의 소수자들의 삶을 표현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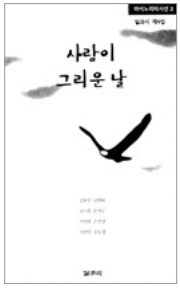
1 왜 딸려!
2 사람이 그리운 날
3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4 첫사랑
5 평화시장
6 물은 제 길을 간다
7 겨울삽화
8 너는 나의 나다
9 산동네 백일홍
10 연둣빛 새순
11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12 아침 햇살이 그립다
13 슬픈희망
14 어둠 속에서 별처럼 싹이 트다
15 지리산의 달빛
16 부디 우리에게도 햇볕정책을
17 눈 내리는 저녁
18 호루라기
19 지리한 장마,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 저 겨울산 너머에는
21 두어 번 날갯 짓에 명왕성을 난다
22 젖은 몸에서 김이 난다
23 칼
24 물으면서 전진한다
25 개미집
26 쌀의 노래
27 거꾸로 서서 굴리다
28 하루살이의 노래
29 가뭄시대
30 완전에 가까운 결단
31 우린 식구다
32 맨얼굴
33 따뜻한 밥
34 각하께서 이르기를
35 소
36 외딴집
37 엄마생각
38 비로소 웃다
39 아내의 시
40 탑
41 통일, 안녕하십니까
42 생이 너무나 즐거운 까닭
43 희망을 찾는다
44 깐다
45 ㄱ
46 나는 안드로메다로 가겠다
47 꽃 피기 전과 핀 후
48 구름보다 무거운 말

© Ryoo, In Keun

왜 딸려!

1980년대 후반 노동자대투쟁의 기운 위에 첫발을 내딛은 구로노동자문학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시선집. 그간 쓰인 수천 편의 시들 중에서 70여 편을 묶었다. 이 시집은 우리에게, 지난 한 세대 동안 전속력으로 내달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 중의 하나로 발전해 온 한국 근대화의 뒤안 길에, IMF의 폭풍 아래, 그 '기적'을 일구어 온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질문한다.

구로노동자문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시집 | 152쪽
5,000원 | 1998년 7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사람이 그리운 날

서울, 마산, 창원, 여수, 거창으로, 심지어는 중국 북경에까지 흩어져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일과시> 동인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는 공장 체제에 대한 분노를 감성 어린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아름다움들을 놓치지 않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뜨거운 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람이 그리운 날>이라는 제목은 흩어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연대의 욕구를 시사한다.

일과시 제4집 | 136쪽 | 5,000원
1998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땅과 땀과 일과 삶 대신 문명과 기계와 이미지와 기호를 쫓아 남 뒤질세라 '탈(脫), 탈, 탈' 경쟁을 벌였던 90년대의 시대정신에 소금기 어린 언어를 뿌리는 시인들은 실업의 위기 속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의 현실로, 세상 속으로, 세상의 바닥으로 내려가자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하는 존재(노동자)로서의 시쓰기가 자본의 시간(노동 시간)에 저항하는 것이면서, 삶을 보존하고 살려나갈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본연적인 삶으로서의 시이기 때문이다.

일과시 제5집 | 144쪽 | 5,000원
1999년 10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첫사랑 (어색한 휴식 개정증보)

90년대 들어와서 부끄러움의 정조로 채색되어간 그의 시는, 91년 소련의 붕괴와 뒤이은 혁명운동의 쇠퇴에서 비롯되어 절망의 감정과 태를 잇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절망과 동의어가 아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에 저항하는 정조, 절망을 넘어설 실을 찾고 있는 감정이다. 즉 꿈의 만회를 위한 긴장의 정서이다. 시인은 시적 모색과 성취, 신자유주의적 지배에 대항할 방법을 못찾고 있는 우리 사회 노동계급 고뇌와 모색의 일단을 보여준다.

김명환 시집 | 112쪽 | 7,000원
2009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평화시장

관념적 이론에 사로잡힌 대학 출신들이 노동현장에 들어와 한바탕 휘젓고 지나가는, 흔한 학출들 중 하나겠지 했던 시인은 '울렁이는 시대의 노래가 되지 못'할지라도, '원단더미 아래 곰팡이로 숨막힌다 하더라도 / 누군가 손을 내밀면 / 순대 떡볶이 불평 불만… / 그 무엇이라도 / 그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코 거창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언제나 묵묵히 '모두들 손 털고 떠난 자리'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한주 시집 | 144쪽 | 5,000원
2000년 3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물은 제 길을 간다

황규관의 시들은 대지에 맨발을 딛고 자연 물상의 세심한 관찰과 사유를 통해 얻는 성찰의 시들로 주변을 이루는 계열과, 금지와의 싸움, 또는 그 해체를 통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발상에 뿌리를 둔 시들로 구분된다. 혼돈 속의 다양한 가능성의 내재에 기초한 그의 시들은 노동자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지점인지도 모른다. 문자로 드러나지 않은 여백과 배면에 오늘날 노동자로 살아가는 고단함과 치열한 자기 확장의 노력들 말이다.

황규관 시집 | 128쪽 | 5,000원
2000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겨울삽화

우러나오는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힘에 겨워 산다는 것, 목구멍까지 괴어오를 때 그래도 견디는 것이라고 미치도록 흠모하는 거라고 앙가슴 다독거렸다. 우러나고 걸러지고 흔적도 없이 바래 정갈해지고 싶었다. 새로 바른 창호지에 어리는 갈볕처럼. 이 자리를 빌어 척박한 환경에도 시를 일구는 '젊은 시' 동인들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혼자 일구어 가는 텃밭 오늘은 부디 술 좀 넉넉히 부어야겠다. _2000년 10월 김광선

김광선 시집 | 128쪽 | 5,000원
2000년 1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너는 나의 나다

전태일 열사 30주기를 맞아 그러한 우리의 성과와 현재를 냉엄하게 돌아보기 위해 이 시집을 준비했다. 전태일의 정신은 다름아닌 '너는 나의 나다'라는 전일한 인간정신의 불같은 실천에 있었다. 그 정신으로 이제 다시 '다 못 굴린 덩이를' 밀고 자신이 선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노역 같은 삶을 종식하자. '역사의 기관차에 유임승차하자.' 전태일,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삶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노동자문학회 | 전태일 열사 30주기 기념시집
172쪽 | 5,000원 | 2000년 11월 출간
국판 변형 | 무선

산동네 백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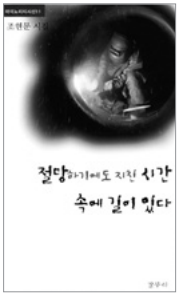
왕십리를 생각할 때 마다 그 산동네 언저리에 피어있는 백일홍을 떠올리게 된다. 재개발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섬처럼 갇혀있는 잿빛 왕십리에, 한 점의 원색으로 시인은 아직도 그 산동네를 지키고 있다. 시들은 몇 번을 우려낸 진한 뼛국물처럼 농밀한 삶이 그 안에 녹아 있다. 아침 저녁이면 낡아버리는 이 속도와 일회용의 시대에 그의 시들은 느림과 따뜻함으로 차 있다. 진정한 힘은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그는 시로써 조용히 타이르고 있다.

박인섭 시집 | 128쪽 | 5,000원
2000년 1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연둣빛 새순

기계의 멈춤은 작은 부품의 마모에서 시작된다. 기계를 고치며 작은 볼트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곪은 부위에 새살이 돋게 치유하기 보다는 외과 수술로 도려내기에 급급하다. 한 개의 부품의 상처에서 터져 져져나오는 절규는 단지 한 개의 부품의 절규가 아니라 기계 전체의 절규이다. <일과시>가 현실의 부정성에 대한 불굴의 적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작동하는 기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계 전체의 작동을 겨냥하는 것이다.

일과시 제6집 | 136쪽 | 5,000원
2001년 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시인은 변방에 있지만, 분명 중심을 겨누고 있다. 그것은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중심을 만들어 가야 함을, 변두리의 중심성을 견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리얼리즘이라는 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떠난 자리를 기꺼이 지키며 그 자리에 그 다른 중심을 세운다는 것이다. 시는 변두리의 중심을 지향하면서 한편 지난 시대 노동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일구어 냈던 미학을 계승하고 있다.

조현문 시집 | 168쪽 | 5,000원
2001년 6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아침 햇살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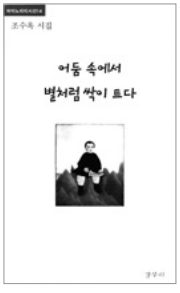
몇 년 사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반 이상 줄었다. 어제 돌아가던 기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물건들은 변함없이 잘 포장되어 공장문을 나간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노동이 신성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오늘 하루 몇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몇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어 머리띠를 묶고 눈에 핏발을 세운 처절함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공단 하늘 밑에서, 우리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주춧돌을 놓기란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표성배 시집 | 152쪽 | 5,000원
2001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슬픈희망

세상이 아무리 변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 오랜만에 살아서 펄펄 뛰는 시, 절규가 살아 있는, 치열하고 뜨거운 시를 본다. 김기홍의 시는 땀에 절은 질펀한 시이면서, 흙처럼 따스하다. 살기 위해, 오늘 또 하루를 살아있기 위해 노동으로, 굳건한 뼈대로 서 있는 시. 병들고 지친 육신으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굳게 버티며 쓰는 시, 돌멩이 같기도 하고 철근 같기도 한 시를 다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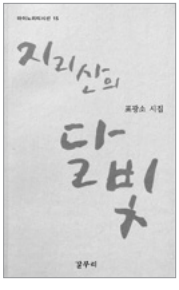
김기홍 시집 | 160쪽 | 5,000원
2002년 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어둠 속에서 별처럼 싹이 트다

흙에서 자라난 목소리로 생명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조수옥의 시편들은 개인의 절망을 통해 공동체의 한을 드러내며, 모든 소외된 자들의 한을 위무하는 힘을 보여준다.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던 시인은 기형적 개발과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명체들을 향해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 시인이 보여주는 사회인식은 생명의식과 연관되면서 보편적 생명의식으로 승화되고 있다.

조수옥 시집 | 96쪽 | 5,000원
2002년 4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지리산의 달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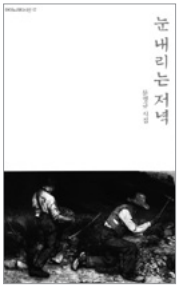
표광소의 시에서 주목할 경향은 삶의 내재성의 긍정 즉 삶의 가치, 척도, 목적은 삶의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이는 우선 삶의 힘의 정점이 기쁨의 어펙트로 표현되는 데서 시사된다. 이렇게 삶의 기쁨을 삶의 정점으로 삼는 것은 삶의 힘의 가치를 그 힘을 발휘한 데 대한 대가 — 예컨대 물질적 이익이나 권력의 획득 — 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힘의 최고조의 발현 자체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자기가치화의 강력한 긍정을 함축한다.

표광소 시집 | 128쪽 | 5,000원
2002년 8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부디 우리에게도 햇볕정책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벌어지는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천대받던 우리가 마침내 변화의 중심에 섰고 이는 우리 자신의 주인된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산다는 건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다.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세상을 바꾸듯 우리의 일터를 당당히 지켜낼 것이다.

객토문학 제3집 | 136쪽 | 5,000원
2002년 1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눈 내리는 저녁

한 사람의 위대한 시인의 마음속엔 한 사람의 평론가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어느 평론가는 말했다. 그만큼 자기 시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다. 문영규의 시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는 이 시집에 실린 시에서 그의 욕심과 고뇌를 읽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그의 시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릴 날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할 수있다. 애정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의 시를 읽기를 원하고 싶다._정규화 발문

문영규 시집 | 152쪽 | 5,000원
2002년 1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호루라기

객토문학 동인들이 전국의 노동시인들과 함께 창원에서 분신 자살한 노동열사 배달호 씨를 추모하는 시집을 펴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는 2002년 1월 9일 새벽 6시경, 회사 내 '민주광장'에서 유서를 남긴 채 분신했다. 그는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2년 두산 재벌의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비인간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던 중이었다. '호루라기'는 열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이다.

객토문학동인 | 배달호 노동열사 추모시집 | 112쪽
6,000원 | 2003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지리한 장마,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꿈도 많고 서러움도 많던 시절, 자취방엔 빼곡하게 꽂힌 책.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공단 노동자로 살며 오롯이 그 청춘으로 시인은 시를 썼다. 이 시집 출간 후, 35미터 높이 지프 크레인에서 129일간의 고공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김주익 씨가 자살을 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을 한 지 9개월 만이다. 죽어야 살아나는 이 슬픈 세상에서, 시는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에 작은 돌멩이의 외침이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저 모퉁이 길을 돌아가면 피어있을 풀꽃 한 송이다.

정은호 시집 | 128쪽 | 6,000원
2003년 10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저 겨울산 너머에는

시인은 공장과 함께 키가 자랐고, 공장과 함께 사랑도 익었고, 공장을 통해 삶을 알았다. 파업으로 떠났던 정우 형이 비정규직으로 돌아왔다. 같은 공장에서 서로 다른 작업복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선이 그어진다. 시인과 함께 자랐던 공장의 해는 멀리 달아나고 짙고 길게 늘어진 공장의 겨울 그림자가 시인을 밟고 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시인은 저 겨울산 너머를 본다. 시인은 저 겨울산 너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표성배 시집 | 127쪽 | 6,000원
2004년 4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두어 번 날갯짓에 명왕성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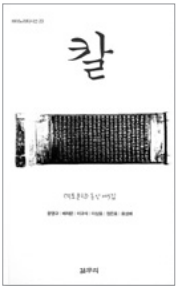
시인은 80년대를 노동과 문화의 장에서, 90년대에는 환경과 평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고, 지금은 그것을 아울러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녹색문화를 함께 나누고자하는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월간『말』지에 지난 2년간「유영초의 숲해설」, 혹은「유영초의 문명비판」이라는 에세이를 연재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산문의 숲을 걷고 있다. 그는 이제 숲 깊숙이 숨어 있는 시의 샘물을 길어 올리고 있고, 그 맑고 투명한 풀빛의 생각들이 이 시집에 가지런히 담겨 있다.

유영초 시집 | 126쪽 | 6,000원
2005년 3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젖은 몸에서 김이 난다

청도면 고법농장에 가면 원조 '돼지 엄마'가 살고 있다. 시인의 시선은 삶의 터전인 집안에서 직접 받아내는 새끼 돼지와 강아지들, 티격태격 식구들에 한정되어 있다. 이 좁은 시야가 그의 시를 한없이 섬세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덕을 발휘한다. 시인은 고무장화 속을 들여다보며, 어미 소와 호흡하며 일 속에서 시를 산파한다. 독자들은 가녀린 버들잎 같은 실눈의 그의 시선이 포착해 내는 작은 세계에 접어들어 따뜻하게 녹아버리면 그만이다.

신은립 시집 | 128쪽 | 6,000원
2005년 4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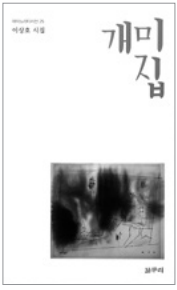
내 밥그릇과 직결되는 공장 담을 나는 기꺼이 넘을 수 있는가? 외국산 쌀이 밥상에 당당히 올라 앉는 현실. 빼앗기기 직전의 독도 문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조(自嘲)가 아니라 탄식(歎息)이다. 절박함이다. 문학을 통해 이 절박함을 공유하고 알려내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침략자의 손에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어도 오직 평화를 염원했던 조상의 숨결을 반드시 되살려 내야겠다.

객토문학 제5집 | 144쪽 | 6,000원
2006년 7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물으면서 전진한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 죽음의 공장의 하청노동자로, 노동조합 건설과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품고자 했던 나의 30대의 삶과 투쟁의 기록이다. 하청노동자로서 당해야 했던 서러움과 분노로 싸웠고 인간다운 삶의 집, 그 희망의 집을 짓고자 했던 치열했던 비정규직 투쟁의 한 시기가 마감되고 있다.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 투쟁의 거리와 현장, 함께했던 동지들의 그 신뢰의 눈빛들, 따뜻한 함성들, 연대의 몸짓들이 희망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웅 시집 | 192쪽 | 6,000원
2006년 1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개미집

이상호의 노동에는 아직도 신혼의 살내음이 묻어있어 좋다. '불나방이 불빛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야간작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의 꿈은 소박하다. '월급 밀리지 않고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이다. 천박한 자본으로 도배 된 세상에 너무 소박해서 눈물겹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가불인생'을 버텨내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자본의 힘으로 뭉갤 수 없는 순진함과 낙천성이다.

2007년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이상호 시집 | 128쪽 | 6,000원
2007년 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쌀의 노래

지루한 장맛비가 연일 이어집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 속에서 논 가운데 노인 한 분이 비옷을 입고 엎드려 있습니다. 논매기를 하는 사람 또한 한 포기의 나락같이 비에 젖고 있는 풍경이 애잔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뼈이고 살이 되어 오늘도 들녘을 풍요롭게 하는 "쌀" 버릴 래야 버릴 수 없는, 뗄 래야 뗄 수 없는 쌀과 인간, 인간과 땅 사이에서 인간이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땅이 됩니다. 목숨이 됩니다. 정신이 됩니다. _ 2007년 7월 객토문학 동인

객토문학동인 | 한미FTA 반대 기획시집 | 104쪽
6,000원 | 2007년 9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거꾸로 서서 굴리다

말의 亂世다. 말이 말의 과녁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말과 말이 서로 날뛰다가 말에 상처를 입는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 말은 말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끔 산에 올라 너럭바위에 노을과 함께 앉는 날이면, 山寺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는 맑고 깊었다. 그 종소리가 말이라면 나는 한없이 경배하고 싶었다. 그동안 몸속에 자생했던 말을 캐내 바깥으로 옮긴다. 혹, 말의 상처는 아닐까 두렵다. _ 2007년 늦가을 三聖山望月庵에서 조수옥

조수옥 시집 | 88쪽 | 6,000원
2007년 1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하루살이의 노래

출구는 막혀있다. 그러나 반드시 출구는 있다.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위기의식에서 발 빠른 탈출을 할 때 그를 괴롭히는 허전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상실한 세월을 되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외로움에 자연이 동참해 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현실에의 피곤함을 위로받고 싶어한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세상에 얼굴을 든 시인은 서툰 걸음마에 부끄럽고 두려우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을 채찍질을 하면 걷고 또 배우고 목숨과도 같은 시를 쓰는 중이다.

이규석 시집 | 112쪽 | 6,000원
2007년 1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가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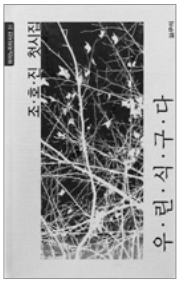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뭄시대라 부른다. 그 시대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린다. 물론,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희망이다. 희망이란 늘, 어둡고 바람 쌩쌩 부는 곳에서 싹이 움트기 마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라,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는 발자국이 자꾸 느려진다. 어깨를 맞대 마음 따뜻하게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하다. 지금은 가뭄시대이기 때문이다.

객토문학 제6집 | 148쪽 | 6,000원
2008년 1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완전에 가까운 결단

1970년 11월 13일 분신으로 자신의 '노동해방' 의지를 표현한 전태일 열사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여 58명의 노동시인들이 쓴 시를 백무산, 조정환, 맹문재가 엮어 시집을 발간했다.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시들과 노동 현실,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을 담았다. 또 2008년 촛불 집회에 관한 시들과 2006년 타계한 故박영근 시인이 전태일의 삶을 어린이들에게 전하려고 창작했지만 죽음으로 인해 안타깝게 완성하지 못한 동화도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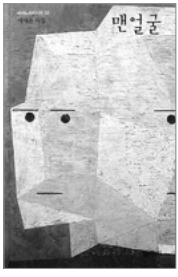
백무산, 조정환, 맹문재 지음 | 전태일열사 탄생
60주년 기념시집 | 156쪽 | 7,000원
2009년 3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우린 식구다

삶의 고통이자 무기였던 시를 안고 마흔 여덟 해를 살아온 시인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시의 한계를 되돌아보면서 환승역에 선다. 그리고 '못 쓴 시라도 다시 쓰자 / 못 산 인생이라도 다시 살자 / 목청 쇠했더라도 다시 노래 부르자"고 다짐한다.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 그리고 방황, 여수와 남녘에서 찾은 절망과 희망을 노래한다. 지난 고통의 시대와의 결별을 위한 이 시들은 홀로였던 시인의 그대를 위한 등불이고 노래이다.

조호진 시집 | 177쪽 | 7,000원
2009년 5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맨얼굴

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자기표현이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어가는 힘이다. 지나치게 '새것'이나 '남다름'을 내세우는 문학주의적인 시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 해고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희망퇴직을 한 시인은, 고추밭에 뛰노는 아이들 노는 소리에 반가워 마령재 고갯마루에 올라 하염없이 바라보고 선 할아버지를 보며,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눈물짓는다. 멋들어진 장식도, 그럴듯한 포장도 없는, 수수하고 담담하게 풀어낸 '맨얼굴'의 시가 주는 잔잔한 울림을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배재운 시집 | 120쪽 | 7,000원
2009년 5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따뜻한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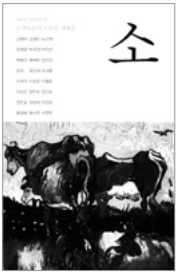
현장 노동자들의 모임인 '해방글터' 동인인 시인은 용접노동자이다.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쓴 시들을 시집에 담았다. 시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죽음을 생산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슬픔과, 고통, 분노와 투쟁을 그린 시어들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시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신경현 시집 | 160쪽 | 7,000원
2010년 12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각하께서 이르기를

'양극화'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260여 일이 넘도록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노동자.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 장학금 받으라 하시고, 물가가 올라 서민의 생활이 힘들다 하면 소비를 줄이라 하시는 각하. 실종된 것이 인간성만은 아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하고, 시가 필요한 시대다. 시와 자본주의는 양극화만큼이나 멀지만 강물은 길을 잃지 않는다. 스스로 이정표를 세우고 흐르며 작은 희망이 모인다. 역사가 된다.

객토문학 제8집 | 120쪽 | 7,000원
2011년 10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소

한때 '생구'라 불리며 농사꾼의 가족이자 동료로 존중받았던 소는 오늘날 "순전히 쇠고기 육괴로만 계량"되며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염병에 걸려 살처분되는 처참한 시대를 살고 있다. "고기로 태어났기에/난도질당"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구제역걸려 떨고 있"는 소의 눈망울 앞에서, 시인은 한미FTA와 구제역 파동으로 생계를 박탈당한 농민의 마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받고 삶이 막막해진 해고노동자의 현실을 떠올린다.

객토문학 제9집 | 120쪽 | 7,000원
2012년 10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외딴집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그의 땀내와 직접 기르고 매만진 나물 향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반가움"을 담은 이 시집은 다블산의 인적도 드문 '외딴집'에 살지만 "검둥이도 숨어버린 마당엔/눈발 섞인 바람만 법석이니/결국 우체부도 쉬는가 보다."하며 집 밖의 생명에 관심을 둔다. 소나무와 뻐꾸기 등 생명에 애정을 둔 시들은 따뜻하다. 따뜻함의 저변에는 "낮게 흐르다/ 품을 듯 품을 듯 다 놓아주고/다시 몸 벌려 품어 주는/ 살래천 순한 강물"(「살래천」) 같은, 껴안되 놓아 주고, 품되 소유하지 않는 너그러운 모성이 흐르고 있다.

임미란 시집 | 116쪽 | 7,000원
2013년 1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엄마생각

생명적 역동성과 탄력적인 서정의 근육을 드러내는 조문경의 시들은 서정 전체가 무척 동적이어서 마치 시인이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주변의 생명체들이 뿜어내는 생명의 활력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낸다. 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 모두가 더 많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최대의 풍경"이다. 아스팔트 틈에 핀 민들레는 악조건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더 거칠고 넓적한 잎으로 생의 중심"을 만들고, 자신의 삶의 조건을 "흔들리면서 깊어질 수 있는 아스팔트 무대로" 만들어 버린다.

조문경 시집 | 124쪽 | 7,000원
2013년 6월 출간 | 사륙판 변형 | 무선

비로소 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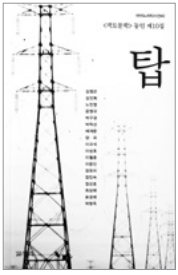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조정환은 해제 「이한주 시에서 '길 이미지'의 진화」에서 이한주의 시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길 이미지'의 궤적을 좇아, 시대의 변화, 주체성의 변화, 혁명의 변화를 읽어낸다. "도시적 삶이 가하는 설움과 긴장의 공간"인 흑석동과 창신동의 비탈길이 철길로 바뀌는 동안, 청계천 평화시장 "비탈길에서의 '열 시간 노동'이" 철도노동자인 시인의 "스물네 시간 맞교대 노동"으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네 안의 너"를 찾는 구불구불한 길의 발견은 새로운 혁명의 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한주 시집 | 148쪽 | 7,000원
2013년 7월 출간 | 국판 변형 | 무선

아내의 시

"1시간 30분짜리 청량리 한탕"을 타고 오는 동안 "한평 남짓한 전동차 운전실"에서 그의 시들은 태어났다. "아등바등 가지 끝 / 발버둥 치던 홍시 / 세상의 끈을 놓는다"(「신자유주의」)에 표현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2013년의 철도노동자가 놓인 구체적 시공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묵직하고 날카로운 고발이다. 오진엽의 시집은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려는 자본의 변화구에 속지 않으려고 공을 끝까지 살피는" 오늘날의 정직한 사람들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진엽 시집 | 112쪽 | 7,000원
2013년 7월 출간 | 사륙판 변형 | 무선



탑

'안녕하지 못하다'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2013년 12월, 시인들은 '탑'을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의 저항의 상징으로 여긴다. 김진숙의 타워크레인, 전주 버스사업장,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아산공장 등 전국적인 고공농성들. 생존을 위해 오르는 노동자들과 탑돌이의 유래를 연결하며 시인들은 묻는다. "요즘 뉴스 보이께내 / 이리도 죽으라 추운 날씨에 / 사람들이 높은 탑 위로 / 자꾸 올라가데 그거 / 저 탑들 이야기 하고 다른 기 뭐꼬?"

객토문학 제10집 | 144쪽 | 7,000원
2013년 12월 출간 | 사륙판 변형 | 무선

통일, 안녕하십니까

현실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말이기보다 장벽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더 자주 쓰인다. 그래서 시인들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의 위선을 거침없이 폭로하고자 한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춘 시간이 / 팽목항에서 광화문으로 솟구치더니 / 광화문에서 팽목항까지 / 굽이굽이 지천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이제 "왕래가 빗발치는 삶의 전쟁터에서 / 함께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시인들은 손을 내밀고 있다.

객토문학 제11집 | 140쪽 | 7,000원
2014년 11월 출간 | 사륙판 변형 | 무선

생이 너무나 즐거운 까닭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손자"는 "짤뚝막한 다리로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어떤 세계를 만들"고 "어떤 나라를 건설"한다. 걷고, 빨고, 냄새 맡으며 자기 세계를 막 빚기 시작한 아가는 '자기 생명적 힘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야말로 생의 명령이라고 일깨워 준다. 예순 중반에 접어든 시인이 삶을 새롭게 가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거풍(擧風)하는 기술이다. 거풍이란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 두었던 물건에 바람을 쐬어 주는 것이다. 뒤집어 바닥을 말리는 나룻배 썩지 않게 '거풍'하는 것에서 새로움은 생겨난다.

김금자 시집 | 112쪽 | 7,000원
2015년 6월 출간 | 사륙판 변형 | 무선

희망을 찾는다

12번째 동인지의 1부는 객토 동인이었던 고 문영규 시인을 기리는 마음을 담았다. 2부는 기획 시와 산문으로 이 시대의 민낯을 고발하고 3부에서는 동인 개개인의 고민을 문학 세계로 펼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한 소위 "7포 세대가 양산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가를 묻고, 아직 그 진실에 조금도 다가서지 못한 세월호,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의 삶이 파괴된 밀양 송전탑을 되짚어 본다.

객토문학 제12집 | 160쪽 | 7,000원
2015년 11월 출간 | 사륙판 | 무선

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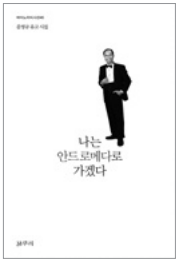
노인들이 주인공인 시들은 노인복지 활동을 하며 포착한 인상적인 장면들을 한 편, 한 편에 정갈하게 담았다. 또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물과 사건들을 소재로 한 시들, 주로 가족과 함께한 체험을 소재로 자신의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한다. 어머니나 외할머니, 어르신들과의 만남, 그분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주는 깨달음에 관한 시들과 지난 11년간 시인이 객토문학 동인시집에 발표했던, 사회 부조리를 겨냥한 날카로운 시들이, 글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늘 정직하고픈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상호 시집 | 112쪽 | 7,000원
2015년 12월 출간 | 사륙판 | 무선

ㄱ

'ㄱ'으로 시작되는 자음들의 자식이기도 한 언어들은 점점 뭉뚝해지거나 날카로워지고 있다. 삶의 무게로 등은 자꾸 'ㄱ'을 닮으려 한다. 각자의 방식대로 얼어붙거나 굳어진 언어에 군불을 지피거나 그것을 불려 왔다. 서로 만나 추천한 8편의 시를 읽고 다시 짧은 형식의 시로 그 감흥을 옮겨 보기도 하고, 각자의 자작시들을 들여다보고 벗겨 보고 서로 담아 나눠 가졌다. 시를 핑계로 만나고, 만남을 핑계로 시를 썼다. 우리 밖의 이웃들에게 『ㄱ』이라는 시집으로 조심스레 말을 건네 본다.

ㄱ의 자식들 시집 | 192쪽 | 11,000원
2015년 12월 출간 | 사륙판 | 무선



나는 안드로메다로 가겠다

마산, 창원 노동자로 살다 2015년 지병으로 영면한 문영규 시인의 마지막 시집이다. 그는 투병과 더불어 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철저하게 밀고나가, 그 끝에 다다른 모습을 시로 살려 내었다. 시인이 도달한 정신적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 투병 중에도 '병'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그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인은 투병의 현실 속에서 초극을 보여준다. 「주유소 일기」 연작은 시인이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의 의미를 낚아챈 수작들. 시를 가지고 놀다 깨닫게 된 이치로 빛나는 시집이다.

문영규 유고 시집 | 152쪽 | 9,000원
2016년 10월 출간 | 사륙판 | 무선

꽃 피기 전과 핀 후

1990년대 첫 동인들의 작품을 다시 읽는다. 시퍼렇게 뚫고 나왔던 그때가 떠올라 진저리 치기도 하고, 지금도 뿌리를 박고 있는 위정자들을 보며 씁쓸하기도 하고, 이 시대 우리들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숨 줄이 밥줄에 죄어 있는 노동자의 현실에 한숨이 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시를 쓰는 시인이나 시를 읽는 독자들이 함께 시를 통해 현실을 공유하고 치유하고자 시와 산문을 통해 동인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객토문학 제13집 | 128쪽 | 7,000원
2016년 11월 출간 | 사륙판 | 무선

구름보다 무거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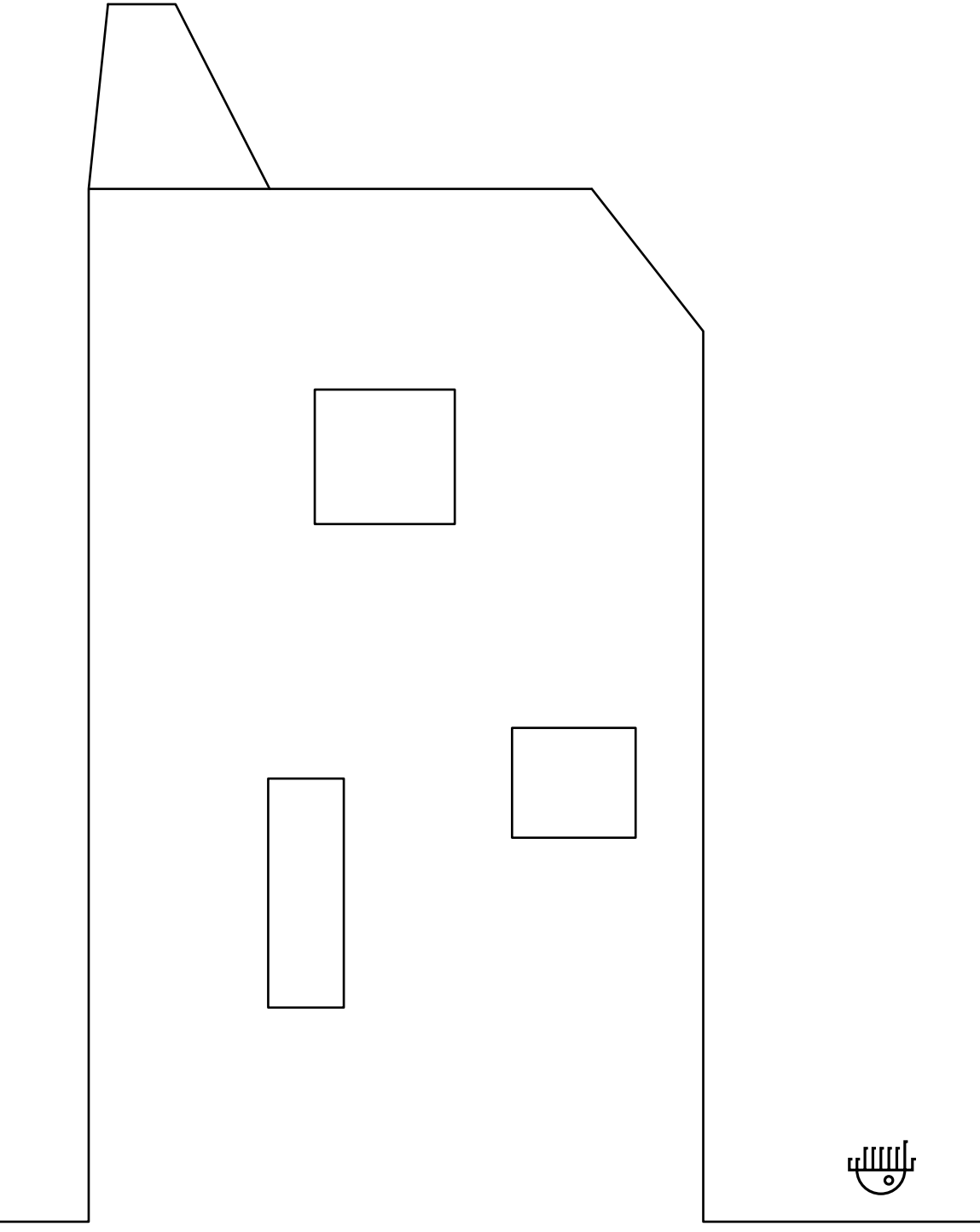
평등, 평화, 행동하는 작가네트워크 <리얼리스트 100>은 2008년 출범 이래 폭력과 소외, 적자생존의 경쟁을 일상화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인간 존엄이 회복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반자본주의적 문화, 문학 운동의 토대를 만들려는 작가, 창작자들이 모여 진보적 가치를 담은 문학작품의 생산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 이번 시선집은 <리얼리스트 100>이 처음 묶는 공동작품집으로 한국문단의 리얼리즘 현주소와 비로소 만날 수 있다.

2017년 리얼리스트 100 시선집
220쪽 | 13,000원 | 2017년 1월 출간
사륙판 | 무선

조정환
정치철학자.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도서출판 갈무리와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아우또노미아』, 『인지자본주의』, 『예술인간의 탄생』, 『절대민주주의』 등이 있다.

신은주
미학연구자. 홍익대학교에서 「베르그손의 이미지와 상상력 개념에 대한 연구」로
미학 석사를 했고 현재 도서출판 갈무리의 운영대표이며
다중지성의 정원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다.

김정연
출판활동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도서출판 갈무리의
편집부 활동과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공역서로 『선언』(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지음) 등이 있다.

조문영
편집 디자이너. 홍익대학교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으나 부전공이었던
시각 디자인이 적성에 맞아 그래픽·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비우는 삶을 실천하며, 고집쟁이 닥스훈트 '계피'와 함께 살고 있다.

김하은
예비 출판활동가.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중지성의 정원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다.